



제2편

산업과
경제

지역경제의 특성과 전망

1. 지역경제의 특성

1) 의정부 지역의 산업

의정부시 지역경제는 클라크(Clark, C.G.)에 의한 산업분류방식에 따라 제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1차 산업은 토지, 바다 등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광업 등이 있다. 제2차 산업은 제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이나 천연자원을 가공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공업(제조업, 건설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3차 산업은 제1, 2차 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각종 서비스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산업으로 매매업, 운수업, 통신업, 서비스업(무역·금융·보험·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인 IT 정보 통신 산업으로, 제3차 산업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제4차 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인간의 두뇌활동에 기초한 새로운 지식 산업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 소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의정부시 지역경제는 1차 산업, 2차 산업은 정체한 반면, 3차 산업은

소매 및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산업인 정보통신 산업의 비중이 미약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장은 우선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현황과 구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 1차, 2차, 3차 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산업 업종별 동향을 가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상권)과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벤처정보통신 분야와 제조업을 대표하는 용현산업단지를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고, 앞으로 일어날 중장기적인 변화를 전망해 볼 것이다.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관련 지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인구는 43만 400명이다. <표 1>을 보면 2011년 현재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동 참가율은 55.1%로 경기도의 61.2%보다 다소 낮다. 고용률은 53.6%로, 경기도의 59.5%보다 미흡한 반면, 실업률은 2.7%로, 경기도의 3.5%보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의정부시의 재정자주도는 62.8%, 재정자립도는 38%로 경기도의 81.8%, 73%보다 많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실업률 이외에 전반적인 산업경제 지표가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미흡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¹

〈표 1〉 경기도 · 의정부시의 주요 경제 산업 관련 지표

(2011년 기준, 단위 : 원 · % · 개)

구분	1인당 GRDP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사업체수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경기도	19,856,000	61.2	59.1	3.5	720,823	81.8	73
의정부시	10,900,000	55.1	53.6	2.7	23,685	62.8	38

출처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경기통계(<http://stat.gg.go.kr>).

〈표 2〉를 보면 2010년 현재 의정부시에 2만 3,286개 사업체가 있으며, 종사자가 9만 7,125명에 달한다. 산업부문별로는 3차 산업이 월등히 많다. 업체 수는 2만 1,471개이고, 종사자 수는 8만 4,502명이다. 2차 산업은 1,814개 업체에 1만 2,618명이 종사하

1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중앙정부 등에 의한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체수입은 통상 지방세와 지방채외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반면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은 넓어진다.

고 1차 산업은 단 1개 업체에 그쳐 3차 산업과의 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총 사업체 수 1만 9,831개 가운데 3차 산업 비중은 92%, 2차 산업 비중은 8%였고, 종사자 기준으로 3차 산업 비중은 87%, 2차 산업 비중은 13%이었다. 2002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10년 가까이 산업 구조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유지는 3차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의정부시가 상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 도시적 특성을 유지·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표 2〉 산업구조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 명)

구분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2002	19,831	4	1,572	18,255	79,775	39	10,679	69,057
2003	20,850	2	1,501	19,347	80,749	33	9,891	70,825
2004	20,960	2	1,534	19,424	80,396	27	9,291	71,078
2005	20,384	3	1,585	18,796	81,819	30	10,405	71,384
2006	20,678	2	1,628	19,248	84,293	52	9,802	74,439
2007	21,881	1	1,768	20,112	89,011	3	11,160	77,848
2008	22,684	1	1,800	20,883	94,063	2	12,638	81,423
2009	23,070	0	1,841	21,229	99,531	0	12,031	87,500
2010	23,286	1	1,814	21,471	97,125	5	12,618	84,502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표 3〉을 보면 2010년 기준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수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5,698개로 전체의 약 24.47%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 숙박 및 음식점업이 4,638개로 19.92%, 협회 및 개인 서비스업이 3,024개로 13.04%를 각각 차지하여 서비스 업종이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대다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 산업 사업체 수의 증감은 2009년 대비 216개 업체가 늘어나 9.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이 가운데 운수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급속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각각 116개, 90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의정부시 지역은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소매 및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

제력 향상 측면이나, 고용증대의 차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소매 및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은 2010년 기준으로 각각 전체 사업체 수의 24.47%와 19.92%이고, 증가 업체 수는 22개소와 15개소로, 증가율은 3.9%와 3.2%이다.

〈표 3〉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수 비교(2009·2010년)

(단위 : 개·%)

구분	연도	2009		2010		증감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증감률
전 산업		23,070	100.00	23,286	100.00	+216	+9.4
A. 농업, 임업 및 어업		0	0.00	0	0.00	-	-
B. 광업		0	0.00	1	0.00	+1	+100.0
C. 제조업		1,169	5.07	1,115	4.96	-54	-1.2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	0.02	6	0.03	+1	+20.0
E. 하수 폐기물처리원료 재생		26	0.11	24	0.10	-2	-7.7
F. 건설업		641	2.78	629	2.70	-12	-1.9
G. 소매 및 도매업		5,676	24.60	5,698	24.47	+22	+3.9
H. 운수업		2,290	9.93	2,406	10.33	+116	+5.1
I. 숙박 및 음식점업		4,623	20.04	4,638	19.92	+15	+3.2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97	0.42	89	0.38	-8	-8.2
K. 금융 및 보험업		287	1.24	293	1.26	+6	+2.9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71	5.08	1,120	4.81	-51	-4.4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2	2.18	523	2.25	+21	+4.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256	1.11	268	1.15	+12	+4.7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58	0.25	59	0.25	+1	+1.7
P. 교육 서비스업		1,366	5.92	1,373	5.90	+7	+0.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2	4.34	1,092	4.69	+90	+9.0
R.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892	3.87	888	3.80	-4	-0.4
S. 협회 및 개인서비스업		3,009	13.04	3,024	13.00	+15	+0.5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의정부시 전체의 1개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4명이다. 특히 산업 비중이 큰 소매 및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업체당 종사자 수가 2.9명과 2.8명²⁾에 불과해

2 의정부시, 『통계연보』, 2011, 97~98쪽.

가족노동을 활용한 소규모 업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최근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업종이나 금융, 정보통신, 사업서비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미비하여 미래 성장기반의 산업형 구조로 나아가기에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의정부 지역경제의 규모와 구성

거시적인 차원에서 의정부시의 경제규모 및 구성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의정부시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은 경기도 전체 총생산 232조 4,287억 원 가운데 2.3%인 5조 3,282억 원이다. 경기도 상위 3개 지역인 용인시의 10.2%, 화성시의 9%, 수원시의 8.3%보다 미미하다.³ 그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증감율도 1%에 그쳐 산업발전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금액으로는 파주시 9조 원, 시흥시 7조 8천억 원, 이천시 6조 2천억 원보다 낮으며, 남양주시 4조 8천억 원, 김포

〈표 4〉 경기도 · 의정부시의 산업별 GRDP

(2010년 기준, 단위 : 억원 · %)

구분	경기도	의정부시	구성비	구분	경기도	의정부시	구성비
전산업	2,324,287	53,282	2.3	정보 및 통신업	77,758	2,666	3.4
농림어업	26,424	42	0.2	금융 및 보험업	98,383	4,750	4.8
광업	2,728	0	0.0	부동산 및 임대업	183,223	5,826	3.2
제조업	735,041	931	0.1	사업서비스업	77,844	1,640	2.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41,225	2,751	6.7	공공행정	120,866	5,535	4.6
건설업	160,154	5,250	3.3	교육서비스업	132,700	4,978	3.8
도소매업	161,078	5,183	3.2	보건 및 사회복지	80,944	3,464	4.3
운수업	69,709	1,883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32,837	968	2.9
숙박 및 음식점업	47,009	1,668	3.5	기타 서비스업	52,678	1,949	3.7

출처 : 경기도, 『경기통계』 2011.

³ 통계청, 『시 · 도 GRDP 발표자료, 2012년 7월』, 2012.

시 4조 9천억 원, 군포시 4조 6천억 원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⁴

산업 부문별로는 전기, 가스 및 수도 관련 서비스 업종이 경기도 총생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 공공행정과 금융 및 보험업이 각각 4.6%, 4.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의정부시 경우 산업 총생산액에서 부동산 및 임대업이 5,826억 원으로 의정부시 전체의 11%, 공공행정 부문이 5,535억 원으로 10%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건설업과 소매 및 도매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의 순이다.

〈표 5〉에서 2012년 기준 GRDP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정부시 지역의 핵심 경제기반은 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서비스업은 의정부시 지역총생산에서 96%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 부문은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의 29.5%를 차지하면서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면, 의정부시 경우 지역총생산의 3.8%에 불과해 제조업이 극히 저조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경기도 · 경기 북부 · 의정부시의 산업별 GRDP 구성비

(단위 : %)

구분	경기도	경기북부	의정부시
농림어업	0.1	4.9	0.3
제조업	29.5	22.8	3.8
서비스업	70.4	72.3	96.0

출처 : 통계청, 『시·도 GRDP 발표자료, 2012년 7월』, 2012.

의정부시의 1인당 GRDP⁵는 2010년 기준 1,240만 원으로 경기도의 2,008만 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상위 3개 지역인 평택시의 4,379만 원, 화성시의 4,202만 원, 이천시의 3,152만 원과 비교하면 50%에도 한참 못 미친다. 또한 2010년 기준 GRDP 성장률은 경기도가 전년도에 비해 9.8% 늘어난데 반해, 의정부는 -1.7%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인접지역인 파주시의 20.2%, 포천시의 10.7%⁶와도 비교해 봐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때, 의정부시 지역경제는 독자적인 성장기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지역통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5 통계청, 『시·도 GRDP 발표자료, 2012년 7월』, 2012.

6 경기도, 『경기통계』, 2011.

의정부시의 제조업은 법적 규제와 환경 문제 그리고 공장부지의 한계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거나 집적화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의류 섬유산업은 공장이전 등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이나 IT 산업으로 산업형태의 전환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에서 최근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기반 제조업은 업체 수가 15개, 종사자 수는 51명에 불과하여 제조업 대비 종사자 비중은 1.3%로 경기도 평균 2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⁷

다음으로 <표 6>에서 경기도의 타 시·군과 비교를 통하여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위상과 특성을 파악해보면 의정부시는 2010년 기준 사업체 수 2만 3,286개로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 고양시 4만 9,606개, 남양주시 2만 5,587개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로 보면 31개 시군 평균 2만 1,000개보다는 약간 많은 중간 수준이다. 사업체의 증가는 2011년 전년대비 0.9%의 성장에 머물러 정체 상태이고, 경기 남부의 화성시 15.7%, 하남시 8%, 경기 북부의 파주시 7.5%의 성장과 비교하면 경기도 제2청사가 입지한 의정부시의 위상에 맞지 않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의정부시는 3.5% 수준에 머물러 경기 북부 지역 시군 가운데 고양시, 남양주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기도 전체에서는 시흥시, 평택시 다음으로 중간 수준에 머문다.

의정부시의 산업 종사자 수는 현재 2010년 9만 7,125명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2.4%로 감소 추세이며 경기도 5.6%, 경기북부 3.5% 증가에 대비해서 매우 나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업체 형태가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있는 제조업보다는 1인 기업 형태의 소상공인 자영업종이나 서비스업의 증가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업체당 고용인원이 줄어든다는 점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7 통계청, 『시·도 GRDP 발표자료, 2012년 7월』, 2012.

〈표 6〉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수 비교(2009·2010년)

(단위 : 개·%)

구분	연도	2009		2010		증감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증감률
경기도		660,008	100.0	687,020	100.0	+27,012	+4.1
경기 북부		166,057	25.2	171,882	25.0	+5,825	+3.5
의정부시		23,070	3.5	23,286	3.4	+216	+0.9
동두천시		5,800	0.9	5,886	0.9	+86	+1.5
고양시		47,523	7.2	49,606	7.2	+2,083	+4.4
구리시		11,330	1.7	11,605	1.7	+275	+2.4
남양주시		24,290	3.7	25,587	3.7	+1,297	+5.3
파주시		18,020	2.7	19,367	2.8	+1,347	+7.5
양주시		13,157	2.0	13,358	1.9	+201	+1.5
포천시		14,227	2.2	14,402	2.1	+175	+1.2
연천군		3,342	0.5	3,290	0.5	-52	-1.6
가평군		5,298	0.8	5,495	0.8	+197	+3.7
경기 남부		493,951	74.8	515,138	75.0	+21,187	+4.3
수원시		56,463	8.6	57,844	8.4	+1,381	+2.4
성남시		49,441	7.5	50,923	7.4	+1,482	+3.0
안양시		40,338	6.1	40,740	5.9	+402	+1.0
부천시		52,172	7.9	54,767	8.0	+2,595	+5.0
광명시		15,665	2.4	16,435	2.4	+770	+4.9
평택시		28,064	4.3	27,706	4.0	-261	-1.3
안산시		43,633	6.6	45,278	6.6	+1,445	+3.3
과천시		3,311	0.5	3,409	0.5	+98	+3.0
오산시		8,548	1.3	9,183	1.3	+635	+7.4
시흥시		30,250	4.6	31,799	4.6	+1,549	+5.1
군포시		14,223	2.2	14,566	2.1	+343	+2.4
의왕시		6,309	1.0	6,706	1.0	+396	+6.3
하남시		9,412	1.4	10,164	1.5	+752	+8.0
용인시		33,832	5.1	35,802	5.2	+1,980	+5.9
이천시		12,173	1.8	12,727	1.9	+554	+4.6
안성시		10,654	1.6	11,549	1.7	+695	+6.4
김포시		17,342	2.6	18,584	2.7	+1,242	+7.2
화성시		30,218	4.6	34,962	5.1	+4,744	+15.7
광주시		18,107	2.7	18,445	2.7	+338	+1.9
여주시		7,269	1.1	7,309	1.1	+40	+0.6
양평군		6,187	0.9	6,244	0.9	+107	+1.7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2. 산업구조의 변화

1) 의정부 산업구조의 특성과 변화

의정부시의 공업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에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요인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공업용수, 편리한 교통수단 등 좋은 공장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의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각 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능을 분화, 발전시키려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1972년 처음 발표된 이후 의정부시의 제조업은 급속히 둔화되었다.

그 이유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한강 이남의 경인공업지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된 반면, 의정부는 그린벨트·군사보호지역·수도권 인구과밀억제지역 등으로 대부분의 땅이 개발 규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제한을 받아 공업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없게 되었다. 의정부는 지역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군사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소비 위주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소매 및 도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기 북부 지역의 공장 이전 촉진정책에 의해 제조업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매우 소규모의 업체로 구성된 3차 산업이 의정부시의 중심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의정부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3차 산업 위주의 산업분포로 변화하게 되었다.

1차 산업 가운데 원예농업만이 비중이 높아졌다. 이것은 거대한 소비도시인 서울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지역의 총 농가수는 2011년 기준 1,150가구이고 경지 면적은 523ha이다.⁸ 이 중 논이 167ha, 밭이 356ha이다. 용현동·민락동·낙양동·고산동·산곡동 등 중동부 지역은 벼농사가 주로 행해지고, 서울과 접해 있는 장암동 일대에서는 원예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가구당 경지면적은 0.47ha로서 경기도의 1.36ha의 35%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다. 의정부시의 임야는 전체 4,850ha중 국유림 700ha, 공유림 403ha, 사유림 3,747ha이고 경기도 전체 52만 6,985ha의 0.9%

⁸ 경기도청, 『경기통계』, 2012.



벼농사를 짓고 있는 고산동 일대

에도 못 미친다.⁹

의정부시 『통계연보』를 통해서 의정부시 지역경제를 개괄하면 2011년 기준, 총 업체 수는 260개로 그 가운데 용현산업단지에 119개가 있으며 종업원은 3,665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8%를 차지한다. 재래전통시장은 3개소로 매장면적은 1만 9,960㎡이고, 2012년 4월에 개관한 대형 백화점 1개, 대형할인점은 3개 그리고 지하상가가 1개 있어 지역 유통과 서민 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밖에도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¹⁰

〈표 7〉 의정부시 지역경제 현황

기업체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할인점		지하상가	
총 업체수	용현산업단지 업체수	종업원수	시장수	매장면적	업체수	매장면적	업체수	매장면적	상가수	매장면적
260개	119개	3,665명	3개	19,960㎡	1개	49,862㎡	3개	46,650㎡	1개	8,377㎡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2012를 수정 · 게재하였다.

⁹ 경기도청, 『경기통계』, 2012; 의정부시, 『통계연보』, 2012.

¹⁰ 의정부시, 『시정백서』, 2012.

2) 업종별 산업 동향

의정부시는 아직 이렇다 할 중심산업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나전모방, 대한파이프, 중앙파이프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염색공장 등이 많았으나 수도권 규제법과 공장이전촉진법 등의 적용을 받아 모두 의정부시를 떠났다. 현재 용현산업단지에는 폐수 소음 분진을 발생하지 않는 제조업만이 입주 가능하여 산업 전반이 위축되어 있다.

반면에 의정부시 지역은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였다. 서비스산업은 2009년 기준 전체 사업체 총 수 가운데 소매 및 도매업이 24.6%로 가장 많고 그다음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백화점을 포함한 도심 상권과 용현산업단지가 의정부시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산업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1) 의정부시 상권

〈표 8〉은 2009년 기준 의정부시 각동의 산업별 사업체 수를 나타낸 것으로 제조업과 소매 및 도매업, 그리고 음식 및 숙박업을 중심으로 각동별 산업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의정부시 전체 사업체 수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5,676개로 가장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 및 숙박업이 4,623개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의정부시의 행정동 가운데 의정부1동이 전체 사업체 수 4,345개로 월등히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의정부2동 2,684개, 자금동 1,864개가 있다.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등 주요 서비스업종도 의정부1동과 의정부2동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송산동을 중심으로, 건설 및 운수업은 자금동과 신곡동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의정부시 지역경제 특히 서민중심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 상권은 크게 의정부1동을 중심으로 한 중앙로, 신시가지, 기능역, 금오지구, 회룡역 상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8〉 동별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009년 기준, 단위 : 개 · 명)

동별	합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23,070	99,531	1,169	5,754	5,676	16,900	4,623	13,278
의정부1동	4,345	13,917	199	537	1,699	4,101	1,126	2,804
의정부2동	2,684	18,916	83	344	562	2,219	660	2,671
의정부3동	1,266	4,798	60	237	303	931	279	579
호원1동	1,298	5,897	89	403	304	865	237	807
호원2동	1,145	3,965	43	240	231	654	183	572
장암동	556	2,362	12	75	142	614	95	364
신곡1동	1,480	4,831	62	293	272	929	261	705
신곡2동	1,825	8,094	124	455	292	1,002	288	841
송산1동	1,587	8,065	146	1,911	330	1,378	281	754
송산2동	1,082	4,362	23	68	156	417	200	563
자금동	1,864	8,963	119	489	444	1,590	306	1,138
가능1동	1,711	6,358	81	266	397	891	344	704
가능2동	745	2,909	69	232	192	386	105	181
가능3동	523	2,321	32	103	123	281	99	193
녹양동	959	3,773	27	101	229	642	159	402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2010.

① 중앙로 상권

중앙로는 위치나 생활권에서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이며 유동인구도 최
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중앙로는 행정구역상 의정부1동에 속하며 북측으로 녹양동,
남측으로 의정부3동, 동측으로 신곡동, 서측으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중앙에는 경기 북부의 중요한 전통시장인 ‘제일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
로 상권에는 각종 음식, 도소매, 개인 서비스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
가 분포하여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중앙로 상권은 1일 승하차 인구수 약 9만 명의 의정부역이 있고, 동두천, 양주, 포천
및 연천 등 경기 북부 육로 교통수단의 출발점인 관계로 항상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
은 곳이며, 상권 서쪽에는 2012년 개통된 의정부시 경전철의 ‘중앙로’ 역사와 같은 해
완공된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들어서 상권의 활성화와 새로운 의정부시 지역경제



중앙로 상권¹¹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¹²

② 의정부2동 신시가지 상권

의정부2동 신시가지는 군사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온 지역이었으나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지와 도로를 정비하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공건물 등으로 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군 부대 이전과 동시에 의정부2동 일대는 의정부역 서부광장을 출발점으로 800m의 시민로를 따라 신시가지 상권이 형성되었고, 시청이 상권 내에 자리하게 되었다.

과거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지역민들이 지역 특산물을 시장에 가져다 판매 해온 제일시장 및 광흥시장이 전형적인 재래 상권을 형성하면서 중앙로와 평화로를 기점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신시가지는 의정부역 동부광장과는 다르게 계획된 도시정

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앙로 상권조사보고서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의정부2동 신시가지 상권¹³

비로 고층빌딩이 들어서면서 은행 및 관공서의 업무시설들이 자리하게 되어 주변의 상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¹⁴

③ 가능역 상권

가능역은 몇 십 년 동안 의정부북부역으로 불려오다가 2006년 12월 가능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가능역 지역도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유동 인구가 분산되어 가능1동 주민센터 주변과 서울, 의정부역, 가능역, 양주, 과주를 잇는 3번국도를 따라 상권이 형성되었다. 뉴타운 개발계획 지역으로 가능역 1번 출구 지역 권의 가능뉴타운과 2번 출구 지역 권의 뉴타운이 선정되어 도로망과 상권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2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이 지역 상권은 아침, 저녁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낮 시간에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읍

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정부 신시가지 상권조사보고서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식점,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휴대전화, 가전제품, 편의품 등 잡화점들이 성업 중이며, 동쪽 도로변 평화로를 따라 경찰서, 은행 등 집객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밤이 되면 퇴근 인구가 많아서 일반 음식점과 학원 등이 활황세를 이룬다.¹⁵

④ 금오지구 상권

금오지구는 의정부시 금오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곳의 대표적인 건물은 남측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2002년 4월 들어섰으며 경기 북부의 10개 시, 군 지역의 관할 행정 및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측으로는 양주 남단, 동쪽으로는 경기도 포천 소흘읍, 서쪽으로 의정부시 중심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주요 교통시설로는 2012년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의 제2청사역이 부용천변을 따라 들어서 있고, 역사 주변으로 상권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¹⁶

⑤ 회룡역 상권

회룡역은 의정부시 호원2동이 소재지이며, 국철인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역사이다. 북쪽은 의정부2동으로 의정부시청, 시의회, 세무서,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행정기관 및 의정부 신시가지가 위치해 있고, 남쪽은 서울시 도봉구와 접해 있는 호원1동의 주거지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초, 중고교, 대학 등 각종 교육기관이 들어서 있다. 회룡역은 전철역사가 완공되어 개통되면서부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다. 특히 의정부3동, 장암동, 호원2동에 거주하면서 서울 방면으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교통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의정부 경전철역이 개통되고 1호선과 환승통로를 마련하면서 주변의 상권이 더욱 확대되었고, 깨끗한 신시가지의 모습을 갖추 나가고 있다.

(2) 전통시장

의정부시의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3~1908)는 이미 150년 전에 의정부 지역에 시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전통시장의 주

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능역 상권조사보고서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오지구 상권조사보고서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회룡역 부근 상가

중 상품은 곡물과 축산물 정도였다. 오늘날의 의정부제일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각지에서 온 피난민들이 지금의 위치에 모여 장사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의정부제일시장 주변상권은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등이 중앙에 위치하고 로드샵(길거리 상점)들에 의해 연결된 상권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가장 큰 상권으로 행정구역상 의정부1동이 있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의정부제일시장 외에 의정부동 148-1번지 일대 의정부시장, 의정부동 30-8번지 일대 의정부청과야채시장 2개소를 2005년 4월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¹⁷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0년부터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이 2006년 10월 29일 개정되면서 이를 법적 근거로 의정부시는 전선 지중화사업,

17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한다. ①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다. ②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경기 북부 최대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

각종 조형물 설치, 간판 정비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녹색거리·의정부역지하상가·로테오거리 등 상점가 상인들도 상인회를 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①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제일시장은 1만 5,110㎡ 부지에 연면적 1만 7,555㎡ 규모로 지어져 현재 7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점포가 들어서 있다. 모두 가·나·다·라 4개 동으로 지어졌고 가동에는 여성복과 한복침구, 아동 및 남성복 등 80여 개 의류 관련 점포가, 나동에는 의류수선·정육·여성복·커튼·건어물 등 70여 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다동은 70여 개의 점포에서 식당과 떡집, 기름 및 정육점 등의 1차 가공 식품류를 취급하고 있으며, 라동은 여성복과 내의류 등 의류관련 점포 70여 곳이 영업 중이다.

의정부제일시장 내부 1층 십자로 좌판에는 의류수선과 반찬류, 공산품 및 분식점, 가전용품 등의 상가가 들어서 있는데, 특히 십자로 동편 좌판에는 어물 특화지구를 마련해 싱싱한 어물을 판매하고 있다. 2층에는 주차장과 번영회사무실, 미장원 등의 고

객편의시설이 위치하여 있고 지하층의 50여 개 점포는 모두 식당이 들어서 먹거리타운으로 자리를 잡았다. 먹거리타운은 난방과 가스설비, 환기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¹⁸

②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은 부지면적 4,289㎡와 매장면적 3,205㎡에 점포수가 80여 개에 달하는 제법 규모가 큰 시장이다. 과거 고양·파주·양주·포천 등의 경기 북부 지역은 물론 강원도 철원에서까지 지역민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시장을 찾았다. 그러나 최근 구리도매시장과 주변 도시에 각종 중·대형할인점이 생기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법에 의해서 등록시장으로 승인받은 의정부제일시장 이외에도 법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을 갖추면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에 의정부청과야채시장은 지난 2005년 4월 25일 전통시장으로 승인을 받고 시장경영진흥원과 경기도 및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비닐천막지붕을 뜯고 상쾌한 아케이드로의 변신을 꾀하였다. 또한 간판정비와 소방·음향시설 설치 등으로 고객에게 한층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시장 입구에 있던 무허가 건물과 노점상을 정리해 주차장 16면을 만들었다.

의정부청과야채시장은 지리상으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구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이점을 가지고, 의정부제일시장과 태평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함께 의정부시의 전통시장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¹⁹

(3) 유통업

2012년 세계 경기침체, 소비위축, 대형할인점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한국 유통업계의 전체 소매시장은 3.8% 성장에 그쳤다. 특히 규제를 많이 받았던 대형할인점은 1.4%의 저성장률을 보였으며, 백화점도 4.9%의 한자리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소비자의

18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ijang.or.kr>).

19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ijang.or.kr>).

구매방식이 소량구매로 바뀔에 따라 편의점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온라인 쇼핑물도 싼 가격과 편의성을 이점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의정부시 유통업의 경우, 2012년 신세계백화점의 입점과 더불어 전통시장 및 기존 골목시장의 서민형 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고, 의정부시 중앙로 제일시장 주변의 구상권과 신흥 대규모 아파트 밀집단지인 가능지역 및 회룡역 등 역세권 주변의 신흥 상권 사이에 병존 및 이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①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의정부시 소재 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하나이지만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은 2012년 4월 20일에 개점하였고 대지 면적 5만 5,290㎡, 연면적 15만 340㎡, 매장 면적 4만 9,861㎡, 지하 2층 지상 11층의 높이로 경기 북부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다. 개장 1년 만에 목표 매출액 3,000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익을 초과 달성하여 성공적인 안착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추가적인 대형할인점의 입점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거부 속에 무산되었으나 각종 사회공헌 활동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중요한 유통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개점 후 1년간 의정부점을 방문한 고객은 1,000만 명으로 이는 43만 명인 의정부 시민이 24번 매장을 찾은 셈이다. 또 배후 상권인 경기 북부 주민이 31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이 최소 3번은 의정부점을 방문했다는 이야기이다.

의정부점의 초기 순항은 20~30대 젊은 고객의 구매력 덕분이었다. 20~30대 고객이 주로 찾는 스포츠, 영캐주얼, 아동분야가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할 정도이다. 신세계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같은 상품 군의 비중은 41%이므로, 다른 백화점에 비해서 5% 가량 높은 수치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 민자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초기 순항의 한 이유이다.²⁰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은 이 지역에 들어선 백화점 중 가장 면적이 넓고 현대화된 만큼 ‘상품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쇼핑·문화·오락 기능을 함께 갖춘 ‘라이프 스타일 센터’로 처음부터 설계되었고 방문객이 상품을 구매할 뿐 아니라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²¹

② 이마트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은 2013년 7월 25일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높이의 연면적 5만 9,000㎡ 규모로 건설되었고,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5개 층의 매장면적 1만 4,545㎡의 규모로 민락 2지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마트 의정부점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생필품, 패션상품 등을 주력으로 하며, 패밀리 레스토랑, 문화센터, 약국, 세탁소, 미용실, 병원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 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 『아시아경제신문』 2013년 4월.

21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http://www.shinsegae.com>).



이마트 의정부점

③ 기타 대형할인점

백화점과 함께 대기업의 중요한 유통업 진출 형태인 대형할인점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과 대척점에 서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영업규제로 사실상 서울이나 신도시에서 출점이 막힌 대형할인점이 경기 동북부 지역, 특히 의정부시에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도 조만간 개장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이미 2012년 전부터 의정부시 진출을 검토해왔다. 민락2지구 땅 2만 4,844㎡를 매입한 후 2014년 3월 개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함께 코스트코가 들어서면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개점해서 의정부 지역에서 영업을 해 오던 롯데마트·홈플러스 등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벤처 정보통신 기업

벤처기업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소규모 기업을 일컫는다. 떠오르는 성장 기업으로 위험성은 매우 크지만 성공할 경우 아주 높은 수익성이 기

대되는 모험 기업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경기 북부 지역에 벤처벨리를 조성한다면 의정부시는 어느 곳보다도 가장 좋은 입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접 지역으로 대기업과 우수한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기 좋은 여건이다. 의정부시에는 2013년 현재 48개의 벤처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관련 업종이 9개로 가장 많으나, 의류부터 전기조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해 있다.²²

의정부 지역의 벤처산업은 2003년 5월 16일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사가 호원동119-151번지에 설립되고, 그 안에 경기북부벤처센터가 개설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경기북부벤처센터는 창업 초기의 성장단계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공간 및 공용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벤처센터의 입주대상은 주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기계, 환경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등이다.

현재 의정부 지역의 벤처기업은 경기북부벤처센터 이외에 용현산업단지, 경민벤처센터 등에 집중 입주하고 있다. 경민벤처센터는 가능3동 경민대학교 교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은 디지털모뎀, 철도차량용품, 청소기구 ERP, 데이터 획득카드, 서버모터 소프트웨어, 카드케이블기계 등으로 다양하다.

(5) 용현산업단지

공장 입지는 개별입지와 정부 및 지자체의 계획입지로 나눌 수 있다.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에 비해 공장입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계획입지의 공급을 늘리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들도 공장규모가 커질수록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의정부 지역은 공장·산업 부지의 부족으로 개별입지에 한계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입지를 통한 공장 설립이 불가피한 환경이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한 곳밖에 없는 의정부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터를 잡은 개별입지 공장이 아직까지는 많은 편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입지의 공장이 146곳인 반면 계획입지는 113곳이다. 업종별로는 전체 262개 공장 가운데 섬유·의복관련 공장이 95개로 가장 많고, 그 다

²² 벤처인 홈페이지(<http://www.venturein.or.kr>).



용현산업단지

음 전기·전자·의료 6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업종은 10~20개 내외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표 9〉 업종별 공장등록 현황

(2010년 기준, 단위: 개)

구분	계	식음료	섬유·의복 가죽	목재 인쇄	석유 화학	비금속	금속	전기전자 의료	기계 자동차	가구	기타
계	262	14	95	9	17	12	15	68	13	7	12
개별입지	146	12	56	6	6	6	8	37	3	6	9
계획입지	113	2	39	3	11	6	7	31	10	1	3

자료: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용현산업단지는 의정부시의 유일한 산업단지이자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2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용현산업단지는 의정부시 도심 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수용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

고 생산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성되었다. 조성면적은 34만 5,546.5㎡으로, 섬유,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자 등의 약 132개 업체(2013년 5월 기준, 임대업체 포함)가 입주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용현산업단지 내의 기업인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 수는 90개이다.²³

3. 지역경제의 과제와 발전 전망

1)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문제점

의정부시 지역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분석해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들 수 있다. 의정부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공장의 신규 등록이나 제조업의 추가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의정부시 전체면적의 71.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전체 용도지역 가운데,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97.49%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가용자원이 없다.²⁴ 따라서 지식기반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발용지가 부족하고 고급인력을 위한 생활환경 및 문화 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황이다.

둘째는 3차 산업의 발전과 고용여건의 열악함을 들 수 있다. 의정부시는 소매 및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발전하여 소비도시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 및 임시·일용직 고용형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의 경우 무급 가족 종사자의 수가 5만 7,700명으로 전체 고용 가운데 29.6%라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고용 형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셋째는 서비스업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위축되어 경제 전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87%를 차지하고 총생산의 96%를 점하고 있어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²³ 의정부시, 『시정백서』, 2011.

²⁴ 의정부시 도시과 내부 자료.

나 소매 및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정보통신, 사업서비스 등의 분야는 매우 미미하다.

제조업이 경기도 전체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달하는 반면, 의정부 지역은 3.8%에 불과하여 생산수준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류, 가죽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지식기반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넷째로 의정부시는 타 지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자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타 지역인 서울에 의존도가 높다. 서울 등 타 지역의 취업자가 많아 취업자 가운데 관내 통근자는 9만 5,000명으로 48.8%인 반면 관외지역은 반이 넘는 52%이다. 또한 의정부 지역의 농업부문은 생산기반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영농활동의 공동화가 발생하였고 농업생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FTA체제에 의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면서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이농현상은 기계화 영농 및 복합농업 등 농업 선진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²⁵ 그 외에 도로·철도 등 인구 규모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저조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²⁶

2)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과제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러한 문제점 못지않은 장점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서울의 고차서비스 및 도시화 집적경제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의정부시는 장래 남북교류나 통일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남북교류 축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나아가는 국제물류 축의 한가운데 있는 주요 도시로서 물류·유통·관광업 등의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²⁵ 의정부시, 『2020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2006.

²⁶ 의정부시, 『의정부시 2020 장기종합 발전계획』, 2014.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군 기지 이전 등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 가용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된다면 의정부 산업구조 고도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의정부시 지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현산업단지에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 기술집약산업, 저공해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교류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지역의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친환경 산업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 기업 간, 연계강화 및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특화산업 중심으로 고도화의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 유통업 분야에는 업체 간 협



대형할인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력적 상생과 최적의 경영기법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쾌적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패턴이 정착되어 가면서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 등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전통시장),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 영세유통업체는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개발과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의 판매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차별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산물의 주 판로인 전통시장이 붕괴되는 경우, 특산물의 생산 감소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패턴과 기호의 변화에 따라 쾌적성과 편리성을 충족시키는 유통환경을 창출하여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상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운영 상태와 방식을 현대화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전략 산업의 선정이다. 의정부시가 2004년 '2020년 의정부비전'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및 물류유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권역별 특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의 환경적 장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미래 지향적 신산업의 성장모델로서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용현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가동률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지원, 창업동아리와 기업체의 자매결연, 방학기간 중 인턴사원의 근무기회를 제공하며, 개별입지 공장을 업종별로 특정지역에 입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 관계자의 선진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직접적인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동두천·연천·양주·포천을 영향권으로 하는, 수도권 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풍부한 배후 인구를 포용하고 있다. 수도권 북부 지역에는 구리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1개소가 운영 중이며 고양시 일산 신도시 내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농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면 경원축의 동두천·양주·연천·포천 및 서울 북동부 지역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창조경제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산업인 첨단 기술 집약

형 제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과 육성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의정부시 내에 중소기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상설 운영하는 한편 기술개발·지원·교류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경기 북부 산업진흥 방안을 강구하고, 신기술창업을 위한 시설과 연구신기술창업센터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²⁷

3)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전망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산업발전을 전망해보면 산업 입지적인 측면에서 지식기반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발전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정부시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 입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의 양주, 포천 등의 지역에 비해 입지 공간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비즈니스 서비스 사업과 고부가가치 유통산업·물류산업 등의 분야는 발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정부시 지역경제 발전 여건을 고려해볼 때, 서비스업·유통산업·물류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과 양주·포천·연천 등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 향후 남북교류 확대 및 각종 규제완화정책 등에 따라 고부가 서비스산업·유통산업 중심으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가 직면한 문제점과 외부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²⁸ 현재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발주의적 사고 대신에 다양성과 차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과거 하드웨어적인 외형과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변화는 도시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미군 부대의 이전과 지역의 택지 재개발 및 경전철의 건설과 같은 교통 확충 등은 급속

²⁷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4·5권, 2004, 809쪽;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기북부 지역발전방향 심포지움』 97쪽을 수정·개제하였다.

²⁸ 정병순, 『대도시경제의 전환과 대응』, 서울시장개발원, 2011.

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던져 주고 있다. 최근 지식 산업화나 창조경제의 부상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밝은 면이라 한다면, 성장 동력의 약화 및 지체, 고용여건의 악화와 높은 실업, 심화되는 경제적·공간적 양극화 등은 지역경제의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면이라 하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역경제를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벤처 청년 창업의 활성화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아가야만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유진삼 전 신흥대학교 경영과 교수

여 백

산업별 현황과 특징

의정부시의 산업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1963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만 해당 기간에 표준산업분류가 수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큰 변화가 없는 산업분류를 위주로 서술하였다.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는 『의정부통계연보』, 『2011 의정부 시정백서』, 『의정부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경기통계 포털사이트, 통계청 포털사이트를 주로 활용하였다.

통계자료를 정리, 분석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산업의 분석기간은 의정부시 승격 기준연도인 1963년부터 2010년까지를 설정하였다.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 포함시켰다. 둘째, 통계자료에서 총합계와 항목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항목별 합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통계 오류가 명확한 경우에는 입력 오류로 보아 다른 조사보고서, 통계포털사이트와 비교하여 조정하거나 시계열상 근접한 수치로 조정하였다. 넷째, 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된 경우 변경 항목 내용을 주석으로 표기하였다.

1. 전체 산업의 주요 현황

의정부의 사업체 수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1

만 8,151개에서 2011년 2만 3,685개로 30.5% 증가하였다. 종업원 수도 2001년 7만 1,992명에서 2011년 9만 8,985명으로 37.5% 증가하였다.

사업체 수의 경우 조직형태별로 보면, 개인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11년 기준으로 87.4%인 2만 699개, 다음으로 회사 법인이 6.3%인 1,484개였다. 종업원 수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체가 54.7%인 5만 4,159명, 회사 법인이 23%인 2만 2,773명으로 개인사업체와 회사 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업체 수나 종업원 수는 증가추세를 보임에 비해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01년 4명에서 미미하게 감소를 보이거나 2005년부터 증가하여 2011년에는 4.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 추이

(단위 : 개 · 명)

연도	구분	사업체수					종업원수					
		합계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 법인	비법인	합계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 법인	비법인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수
2001		18,151	16,545	744	427	435	71,992	41,888	15,736	12,694	1,674	4.0
2002		19,831	17,857	954	398	622	79,775	45,667	18,704	13,050	2,354	4.0
2003		20,850	18,869	971	426	584	80,749	46,542	18,760	13,706	1,741	3.9
2004		20,960	18,880	1,068	464	548	80,396	46,065	19,110	1,818	1,403	3.8
2005		20,384	18,224	1,000	507	653	81,819	45,526	18,421	15,277	2,595	4.0
2006		20,878	18,506	1,150	567	655	84,293	46,356	18,960	16,434	2,543	4.0
2007		21,881	19,333	1,249	603	696	89,011	49,383	19,718	17,316	2,594	4.1
2008		22,684	19,972	1,338	710	664	94,063	50,870	22,791	17,984	2,418	4.1
2009		23,070	20,234	1,425	515	896	99,531	53,781	23,767	19,061	2,922	4.3
2010		23,286	20,417	1,448	494	927	97,125	52,642	23,603	17,964	2,916	4.2
2011		23,685	20,699	1,484	493	1,009	98,985	54,159	22,773	18,492	3,561	4.2
3년 평균	의정부시	23,347	20,450	1,452	501	944	98,547	53,527	23,381	18,506	3,133	4.2
	경기도	689,294	571,052	79,382	14,783	24,043	3,742,717	1,574,264	1,602,028	473,525	92,900	5.4
구성비	의정부시	100.0	87.59	6.22	2.15	4.04	100.0	54.31	23.73	18.78	3.18	—
	경기도	100.0	82.85	11.52	2.14	3.49	100.0	42.07	42.80	12.65	2.48	—

출처 : 의정부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12; 『경기통계』 경기넷(<http://www.gg.go.kr>).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을 대분류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5,7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4,704명,

〈표 2〉 산업 대분류별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 개 · 명)

산업 대분류	사업체수	성별 종사자수		
		계	남자	여자
농업, 임업	0	0	0	0
광업	1	50	44	6
제조업	1,156	5,947	3,809	2,13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6	559	497	62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28	429	390	39
건설업	635	4,664	4,150	514
도매 및 소매업	5,796	17,035	8,581	8,454
운수업	2,492	5,446	5,096	350
숙박 및 음식점업	4,704	13,121	4,678	8,44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9	1,473	1,004	469
금융 및 보험업	292	4,381	1,664	2,7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93	3,351	2,076	1,275
천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6	3,085	1,955	1,1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72	3,248	1,448	1,8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6	5,192	3,737	1,455
교육 서비스업	1,427	12,380	4,079	8,3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23	9,706	1,994	7,7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95	2,406	1,359	1,04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94	6,512	3,285	3,227
합계	23,685	98,985	49,846	49,139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20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094명, 운수업 2,492명, 교육서비스업 1,427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50.4%인 4만 9,846명, 여성이 49.6%인 4만 9,139명이었다. 남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산업은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의 순이었고, 여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이었다.

의정부시는 군부대 등이 밀집되어 있고 그린벨트 등의 명목으로 개발이 규제되어 산업발전이 정체상태에 있다가 주변 위성도시와 생활권이 통합되고 도시기능의 광역

화가 촉진되었다. 그 이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100%), 개발제한구역(71.1%), 군사시설 보호구역(38.1%)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지역개발이 제약을 받아 의정부권역 전체의 산업발전이 미미한 편이다.

의정부시의 업종별 사업체·종사자 현황을 보면, 3차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업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소비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의정부시의 산업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는 반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인 금융, 정보통신,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극히 낮은 편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독자적인 경제성장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비도시의 특성과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체 수나 종업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평균 종업원 수는 감소하거나 미미한 증가에 그치는 특성을 보인다.

〈표 3〉 경기 북부 기초자치단체의 산업현황 비교

(단위 : 개)

구분	연도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체수	의정부시	21,881	22,684	23,070	23,286	23,685
	동두천시	5,618	5,811	5,800	5,886	6,028
	고양시	44,582	46,391	47,523	49,606	51,693
	양주시	13,157	13,048	13,157	13,358	14,637
	포천시	13,934	14,129	14,227	14,402	15,419
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	의정부시	210.90	218.32	230.93	224.93	229.98
	동두천시	230.16	240.06	252.07	245.93	253.30
	고양시	230.40	236.86	243.82	249.64	255.20
	양주시	360.57	362.27	360.90	328.31	335.67
	포천시	405.68	417.63	421.18	439.54	464.29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	의정부시	51.87	52.65	53.53	53.93	55.03
	동두천시	63.28	63.97	62.22	61.53	62.63
	고양시	48.21	49.41	50.62	52.21	53.78
	양주시	73.13	72.52	72.25	67.91	73.05
	포천시	88.10	88.21	89.52	90.77	97.61

출처 : 「e-지방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국 시급 기초자치단체의 산업현황을 비교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사업체 수에서 다른 시와 유사하게 2007년 2만 1,881개에서 2011년 2만 3,685개로 매년 2.06%씩 증가하였고, 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도 2007년 210.90명에서 2011년 229.98명으로 매년 4.7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는 2007년 51.87개에서 2011년 55.03개로 매년 0.79명개씩 작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 농 · 축산 · 임업

1) 농업

의정부 지역의 농업은 1963년 시 승격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농업 생산을 위축시켰다. 한강 이남의 위성도시에 비해 공장 설립 등은 규제되었지만,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택지와 아파트, 상업용지 개발 등 용도 변경으로 농지가 급속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업 인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도 발생하여 농업생산이 더욱 위축되었다.

의정부 지역은 2010년 기준 전체 면적의 약 20%가 경지면적이고 농가 수는 1,074가구이며, 밭은 357ha, 논은 167ha로 논 경작비율이 밭의 절반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회소하다.

곡물은 쌀과 함께 보리, 콩, 옥수수 등 밭곡식 위주로 생산되며,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산지는 밤이 많이 생산되어 의정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밤의 주산지로서 알려져 있다.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신도시 개발과 도시 주택구조 개선 등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인구 유입을 발생시켜 의정부시 총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즉, 택지개발 시 지가가 비교적 저렴해서 아

파트 개발 붐이 조성되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학 등과 같은 교육시설의 부족은 시 인구 유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농가인구는 1963년 총인구 대비 15.5%에서 2010년 0.8%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농가호수도 마찬가지로 13.2%에서 0.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특히 2001년도에 현저한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의정부시의 송산택지개발사업이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4〉 연도별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단위 : 명 · 호 · %)

연도	구분	총인구	농가인구(비율)	총가구	농가호수(비율)
1963		62,239	9,677(15.5)	11,642	1,536(13.2)
1965		69,969	10,440(14.9)	13,131	1,651(12.6)
1970		94,518	8,716(9.2)	19,061	1,386(7.3)
1975		108,365	8,285(7.6)	23,409	1,475(6.3)
1980		133,263	8,724(6.5)	30,519	1,630(5.3)
1985		162,701	6,259(3.8)	40,252	1,220(3.0)
1990		212,368	5,040(2.4)	57,684	1,050(1.8)
1995		281,896	—	90,279	939(1.0)
2000		362,529	4,031(1.1)	117,697	1,054(0.9)
2001		368,887	2,312(0.6)	120,760	647(0.5)
2002		380,521	3,294(0.9)	128,286	840(0.7)
2003		397,145	3,346(0.8)	137,206	836(0.6)
2004		404,937	3,122(0.7)	144,001	824(0.6)
2005		414,030	3,626(0.9)	149,557	1,039(0.7)
2006		410,938	3,482(0.8)	149,577	963(0.6)
2007		421,853	3,834(0.9)	156,057	1,049(0.7)
2008		430,849	3,976(0.9)	161,573	1,118(0.7)
2009		431,008	3,887(0.9)	162,344	1,071(0.7)
2010		431,801	3,589(0.8)	166,333	1,074(0.6)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2) 경지 현황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농지는 절대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농경지면적은 1970년 1,410ha에서 1990년 1,255ha로 감소한 이후 2010년 524ha까지 감소하였다. 전체 농경지의 3분의 1 이상이 택지와 상업지역, 공장용지 및 학교와 도로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가구당 평균 밭 면적은 1970년 0.41ha에서 1995년까지 미미하게나마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0.33ha로 감소하였다. 반면 가구당 평균 논 면적은 1970년 0.61ha에서 1990년까지 0.76ha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0.16ha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농가인구, 농가호수와 같이 경지면적도 2000년부터 택지개발 정책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표 5〉 경지 현황

(단위 : ha)

연도	구분	경지면적			가구당 평균		
		계	논	밭	계	논	밭
1963		1,306.3	807.2	499.1	0.86	0.53	0.33
1965		1,491.2	905.6	585.6	0.91	0.55	0.36
1970		1,410.9	845.0	565.9	1.02	0.61	0.41
1975		1,334.9	723.9	611.0	0.90	0.49	0.41
1980		1,410.7	874.2	611.7	0.92	0.54	0.38
1985		1,298.0	748.0	550.0	1.06	0.61	0.45
1990		1,255.0	795.0	460.0	1.20	0.76	0.44
1995		1,011.0	549.0	462.0	1.07	0.58	0.49
2000		821.0	419.0	402.0	0.78	0.40	0.38
2005		713.0	316.0	397.0	0.69	0.30	0.38
2010		524.0	167.0	357.0	0.49	0.16	0.33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의정부시, 『시정백서』, 2012.

(3) 농업생산 현황

① 식량작물

의정부시의 식량작물 가운데 미곡(쌀)은 1963년 1,430여 톤이 생산되었다. 1970년 2,920여 톤을 기록한 후 1980년에 3,730여 톤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후 논 면적의 감소와 품질과 맛을 중시하는 소비형태로의 전환으로 2000년 1,780여 톤으로 감소한

후 2010년에는 655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잡곡류 생산량은 1970년에 9.8톤으로 급감한 후 1985년까지 26톤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 다시 대폭 감소한 후 1995년에는 다시 급증하는 기복을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두류 생산량은 1970년 109톤에서 1975년 302여 톤까지 급증했으나 그 후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서류 생산량은 1970년 472톤에서 1975년 1,160여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6〉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 : ha · 톤)

연도	미곡		잡곡		두류		서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63	807.2	1,426.8	229.8	128.0	178.0	74.7	86.1	664.0
1965	843.8	1,897.0	70.1	41.2	173.1	76.2	74.2	737.5
1970	765.5	2,923.9	15.2	9.8	150.9	109.0	37.2	472.0
1975	614.3	2,599.5	14.7	10.6	185.5	302.8	80.6	1,160.2
1980	808.0	3,738.0	18.0	23.4	104.4	120.2	31.0	118.0
1985	685.5	2,849.0	13.6	26.0	81.9	94.7	12.8	232.5
1990	600.0	2,376.0	4.0	9.6	22.5	31.2	6.1	101.7
1995	450.0	2,002.0	9.3	34.3	24.0	38.2	14.2	253.7
2000	388.0	1,781.0	8.0	28.8	37.0	43.0	24.0	423.0
2001	388.0	1,752.0	5.0	18.0	33.0	35.0	23.0	406.0
2002	295.0	1,397.0	6.0	21.0	22.0	24.0	21.0	356.0
2003	292.0	1,384.0	6.0	21.0	22.0	24.0	21.0	356.0
2004	280.0	1,319.0	5.0	18.0	19.0	19.0	20.0	350.0
2005	278.0	1,212.0	4.0	14.0	18.0	27.0	18.0	343.0
2006	206.0	1,187.0	4.0	14.0	18.0	25.0	18.0	333.0
2007	206.0	927.0	4.0	14.0	16.0	21.0	13.0	325.0
2008	206.0	999.0	—	—	16.0	43.0	13.0	328.0
2009	167.0	724.0	—	—	—	—	—	—
2010	167.0	655.0	—	—	—	—	—	—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② 채소류

채소류 생산량은 1970년대 중반 최고조에 이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이와 토마토 등 일부 과채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시금치, 상추, 쪽갓 등이 생산량에 집계되어 채소류 생산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참외 생산량은 1970년 99톤에서 1975년에는 380톤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참외 식부면적은 같은 기간에 14ha에서 36ha로 증가했으나 1980년 3.5ha를 끝으로 통계가 생성되지 않고 있다.

③ 과실류

의정부시 과실류 생산은 시 승격 직후인 1964년 118톤에서 2002년에는 6배 이상의 765톤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1990년에는 1,500톤 이상으로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 약 800톤 정도의 감소된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재배면적도 18ha에서 47ha로 2.5배 이상 증가했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과실류 재배면적은 1970년 90ha까지 증가하였다.



의정부 특산물 송산배 재배농원

의정부시의 농업에서 과실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지역 특산물에 해당하는 배의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명성이 있는 먹골배 생산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일기와 토질 등이 적합하여 당도가 높은 송산동 지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4) 농업생산요소와 농산물 유통

① 농기계 보급 추이

1990년대에 들어서 트랙터, 콤바인 등 다용도 농기계와 관리기, 이앙기 등을 지원하는 농기계의 현대화로 수도작(水稻作, 벼농사)의 경우 100%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표 7〉 농기계 지원 공급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 대)

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SS분무기	기타
318	106	51	40	47	12	22	40

출처 : 의정부시, 『시정백서』, 2012.

② 비료 공급 추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의 하나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토양 개량을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가 충분히 사용되어야 하고 객토(客土, 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질이 다른 흙을 다른 곳에서 가져다 논밭에 섞는 일)와 심경(深耕, 땅을 깊이 가는 일)에 더하여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주기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시는 1970년대 중반까지 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객토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나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76년 이후 매년 평균 80ha에서 90ha에 이르는 면적에 객토사업을 실시하였다.

③ 농산물 유통

정부는 쌀 시장의 여건 변화와 그리고 수매제도의 비효율성 등 정부양곡관리정책의 한계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 추곡수매제도를 공공비축 미곡매입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민간 유통기능의 활성화와 소비자 선호 품종 재배를 통한 양질의 미곡을 생산하여 농업 경쟁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생산의욕을 고취하도록 쌀 소득 등 보전직물제와 공공비축 미곡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계획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효과가 창출되어 농민의 자율선택권이 확대되며 민간유통의 활성화와 자율영농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식생활 구조가 변화하고 생활이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어 조리가 쉽고 간편한 인스턴트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가 1993년 110.3kg에서 2011년 66.1kg로 감소하였다. 의정부시 양곡 수급은 <표 8>과 같이 자체 생산량이 시 전체 소요량의 2.4%에 불과하여 부족분은 외지 반입에 의존하여 수급하고 있다.

<표 8> 양곡수급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 명, 톤)

인구수	총 소요량	자체 생산	정부미 반입	외지 반입
430,400	28,449	690	-	27,759

양곡판매업 허가제도 개정에 따라 점포면적 3평, 저울 2대, 돌 고르는 기계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의정부시의 업소 136개가 허가를 받아서 정부 양곡 방출을 전담한 양곡조합으로부터 양곡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의정부시 지역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지역농업기술 시설현황

(2011년 기준, 단위 : m²)

시설	면적	시설	면적
어린이식물원,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1,150	야생화 육묘 하우스	99
야생화 시험포장	400	도농여성 교육장	314
과수(배, 포도) 시험포장	660		

2) 축산업

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시장 차별화 정책을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축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 및 위생 향상으로 안전성의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축산업은 다른 도시지역의 영농형태와 같이 벼농사, 밭농사의 부업 또는 경운을 위한 역용우(일소) 형태로 한우, 돼지, 닭을 사육하였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 육류 수입이 개방될 때까지 사육두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육가구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처음 부업형태의 소규모 사육에서 시작하여 점차 전문화, 대형화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농가의 호당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축종별로 다를 수 있지만 사육 농가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오리, 사슴, 벌꿀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소비수요도 증가하였다.

(1) 주요 가축 사육

의정부 지역에서 수입가축의 증가, 가축사육의 재산성 악화 등으로 2008년 이후 가축사육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2011년 현재, 가축사육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한육우는 8가구 165마리, 젓소는 9가구 96마리, 돼지는 4가구 115마리, 닭은 4가구 2만 8,000마리의 사육에 그치고 있다.

〈표 10〉 연도별 주요 가축사육 현황

(단위 : 호·마리)

연도	구분		한육우		젓소		돼지		닭		산양	
	사육호수	마리 수	사육호수	마리 수	사육호수	마리 수	사육호수	마리 수(천)	사육호수	마리 수	사육호수	마리 수
1963	466	488	10	34	775	1,470	460	6.7	—	—	—	—
1965	355	358	16	55	235	1,538	293	11.7	—	—	—	—
1970	248	261	51	246	322	606	389	131.1	—	—	—	—
1975	422	498	102	701	361	2,644	204	256.8	—	—	—	—

구분 연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산양	
	사육호수	마리 수	사육호수	마리 수	사육호수	마리 수	사육호수	마리 수(천)	사육호수	마리 수
1980	229	336	176	1,406	218	3,273	117	173.3	—	—
1985	257	797	283	2,277	108	2,824	66	63.4	—	—
1990	39	201	154	2,216	36	2,585	19	8.3	20*	418*
1995	70	470	126	1,936	23	3,071	19	21.2	9	302
2000	24	450	37	781	4	1,086	69	13.3	8	424
2001	12	212	24	315	4	1,248	9	3.8	3	135
2002	14	247	34	613	4	152	10	28.5	6	61
2003	18	363	31	632	3	99	4	28.5	7	75
2004	14	281	21	610	3	114	5	20.3	8	129
2005	19	439	19	530	3	290	4	26.6	13	346
2006	19	429	17	390	3	290	4	26.6	19	463
2007	12	198	11	214	2	200	3	24.1	24	889
2008	—	—	—	—	—	—	—	—	23	889
2009	—	—	—	—	—	—	—	—	27	626
2010	16	180	2	222	6	262	8	24.1	23	620
2011	8	165	9	96	4	115	4	28.0	—	—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는 1993년 자료이다.

(2) 가축 위생

광우병(BSE)과 O-157(식중독을 집단 발생시키는 병원성 대장균)의 발생, 탄저균에 의한 생물학 무기 테러 사건, 조류 독감 발생 등과 함께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 호흡 증후군)가 맞물려 국내외에서 축산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축 질병은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닭 뉴캐슬병, 조류독감 등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일 돈육 수출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의정부시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 및 가축의 주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전염병인 소탄저·기종저 외 8종의 예방주사를 실시해



의정부 축산농가

왔다. 그리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비상 상황유지 및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매주 수요일을 “축사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 12월 15일부터 양주,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이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가축방역 소독차량 1대, 구제역 이동통제초소 11개소, U자형 방역소독장 비 9조, 고압분무기 6개를 투입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에는 총 150회에 걸쳐 연간 4,000여 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구제역 방역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가축전염병 종류별 예방주사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탄저병·기증저는 2008년 이후 예방주사가 중단되었고, 돼지일본뇌염은 2001년 이후 200마리 정도로 일정하게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며, 광견병은 2000년에 9,369마리에 대해 예방주사를 실시한 이후 점차 줄어 나갔다. 돼지콜레라는 2010년 이후, 닭 뉴캐슬병과 돼지전염성위장은 2006년 이후 중지하였고, 소전염성비기관염은 2001년 이후 110~350마리 정도에 대해 예방주사를 실시하였다.

〈표 11〉 연도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적

(단위 : 마리)

연도\구분	탄저병	기종저	돼지 일본뇌염	광견병	돼지 콜레라	닭뉴캐슬	소전염성 비기관염	돼지 전염성위장	돼지 오제스키병	기타
1963	420	420	—	2,050	1,475	24,695	—	—	—	—
1965	402	402	—	661	1,706	6,638	—	—	—	—
1970	—	—	—	3,175	3,124	291,950	—	—	—	—
1975	633	633	—	5,471	3,717	—	—	—	—	—
1980	1,264	—	138	2,598	8,958	102,780	—	—	—	—
1985	1,926	—	996	3,585	3,834	—	—	—	—	—
1990	1,910	—	950	2,294	971	—	—	—	—	—
1995	1,300	—	—	4,809	600	—	—	—	—	1,100
2000	640	—	—	9,369	—	29	—	—	—	1,636
2001	333	—	200	8,717	—	23,000	300	160	150	3,500
2002	180	—	200	8,220	—	30,000	350	180	110	—
2003	40	—	200	3,480	—	40,000	110	400	200	—
2004	40		300	4,523	—	40,000	110	300	100	300
2005	200		200	3,528	—	78,000	140	200	100	1,000
2006	180		200	3,868	—	—	140	—	200	4,770
2007	170		190	3,925	—	—	120	—	200	2,175
2008	—		200	3,948	700	—	150	—	200	175
2009	—		200	4,344	700	—	150	—	—	175
2010	—		200	2,281	—	—	150	—	—	300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3) 임업

의정부시에서 임업은 매우 영세한 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임가는 9만 5,000가구로 2005년(9만 7,000가구)에 비해 1.8%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 임가 인구는 25만 2,000명으로 2005년(26만 4,000명)에 비해 4.6% 감소하였다. 또한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채취업 경영 임가는 1만 7,000가구로 집계되었다.

(1) 임야현황

① 소유별 임야면적

2010년 기준 국유림 700ha, 공유림 403ha, 사유림 3,747ha 등 전체 4,850ha이며, 1963년 5,384ha, 1980년 5,167ha, 1990년 5,095ha, 2000년 4,935ha로 임야면적이 점차 감소하였다.¹

〈표 12〉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 ha)

연도 \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963	5,384	504	335	4,545
1965	4,577	507	374	3,696
1970	4,445	335	313	3,797
1975	4,434	333	313	3,785
1980	5,167	694	401	4,072
1985	5,125	94	401	4,030
1990	5,095	707	401	3,987
1995	5,063	705	401	3,957
2000	4,935	689	401	3,845
2005	4,840	688	402	3,750
2010	4,850	700	403	3,747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② 임상별 임야면적

임야는 임상별로 크게 임목지, 무임목지로 분류된다. 1992년 의정부시에서 임목지는 4,011ha로 전체 임야면적의 78.86% 이었다. 임상별 임야면적은 1985년에 전체 임야면적 5,125ha에서 임목지 가운데 침엽수림 1,295ha, 활엽수림 726ha, 혼효림 3,050ha, 무임목지 54ha이고, 2010년 현재는 전체 임야면적 4,850ha에서 침엽수림 648ha, 활엽수림 931ha, 혼효림 2,367ha, 무임목지 904ha로 변화하였다. 침엽수림은 절반 이

¹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기본통계; 의정부시 공원녹지와 내부자료.

상 감소하고, 활엽수림은 약간 증가하고, 혼효림은 520ha 감소하였으나 무임목지는 대폭 증가하였다.

〈표 13〉 임상별 임야면적

(단위 : ha)

연도	구분	합계	임목지				무임목지
			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1985		5,125	5,071	1,295	726	3,050	54
1990		5,095	5,079	1,381	708	2,990	16
1995		5,063	3,985	1,129	918	1,938	1,078
2000		4,935	3,871	1,105	844	1,922	1,064
2001		4,872	3,810	1,106	796	1,908	1,062
2002		4,868	3,807	1,101	798	1,908	1,061
2003		4,855	3,794	1,098	788	1,908	1,061
2004		4,845	3,923	644	766	2,513	922
2005		4,840	3,919	645	765	2,509	921
2006		4,862	3,942	646	765	2,531	920
2007		4,860	3,943	647	766	2,530	917
2008		4,857	3,943	648	765	2,530	914
2009		4,848	3,943	648	765	2,530	905
2010		4,850	3,946	648	931	2,367	904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③ 임상별 임목축적

의정부시의 임목축적은 임목지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상별 임목축적에서 각각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임

〈표 14〉 임상별 임목축적

(단위 : m³)

연도	구분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1970		17,188	12,927	4,252	9
1975		61,799	40,671	111	21,017
1985		163,314	55,314	26,263	81,737
1990		205,377	72,967	32,031	100,379
1995		217,317	55,661	36,069	125,587

연도 \ 구분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2000	279,773	83,015	42,213	154,545
2001	291,952	87,289	43,313	161,350
2002	305,698	91,795	45,177	168,726
2003	319,300	96,502	46,431	176,367
2004	347,989	60,432	77,772	209,785
2005	360,682	63,149	80,538	216,995
2006	376,742	65,877	83,470	227,395
2007	390,577	69,675	86,563	234,339
2008	406,968	73,463	89,980	243,525
2009	425,952	77,283	93,623	255,046
2010	506,327	80,728	108,519	317,080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상별 임목축적은 22만 6,554m³ 증가하였는데, 그중 침엽수는 2,287m³ 감소, 활엽수는 6만 6,306 m³ 증가, 혼효림은 16만 2,535m³나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 조림 현황

의정부시의 조림사업은 1973년부터 정부의 치산녹화계획 또는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78년)의 조림은 대부분 오동나무 등과 같이 다른 나무에 비하여 생장이 빠른 속성수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그 이유는 황

〈표 15〉 연도별 조림 현황

(단위 : ha · 천본)

연도 \ 구분	계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기 타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1963	62.0	141.0	20.0	60.0	—	—	42.0	81.0	—	—
1965	33.4	110.0	33.4	110.0	—	—	—	—	—	—
1970	40.0	68.0	20.0	60.0	10.0	4.0	10.0	4.0	—	—
1975	165.3	207.0	38.6	115.0	102.3	83.0	23.9	10.0	—	—
1980	104.4	54.0	2.2	7.0	101.0	48.0	1.2	1.0	—	—
1985	20.0	43.0	13.0	39.0	7.0	4.0	—	—	—	—
1990	12.6	22.0	4.0	11.0	3.0	1.0	0.5	0.2	7.3	14.6

연도	구분		계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기타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1995	10.0	14.4	—	—	—	—	—	—	1.0	0.4	9.0	13.5
2000	3.5	4.6	2.5	4.5	—	—	—	—	—	—	1.0	0.1
2001	3.0	3.1	2.0	3.0	—	—	—	—	—	—	1.0	0.1
2002	6.0	25.0	6.0	25.0	—	—	—	—	—	—	—	—
2003	4.6	17.4	3.0	1.50	—	—	—	—	—	—	1.6	2.4
2004	2.0	3.0	—	—	2.0	3.0	—	—	—	—	—	—
2005	1.0	1.5	—	—	—	—	—	—	—	—	1.0	1.5
2006	2.0	3.0	—	—	2.0	3.0	—	—	—	—	—	—
2007	2.0	1.7	—	—	2.0	1.7	—	—	—	—	—	—
2008	2.0	1.9	—	—	—	—	—	—	—	—	3.0	1.9
2009	2.0	1.7	—	—	—	—	—	—	—	—	2.0	1.7
2010	2.4	1.6	2.0	1.6	1.0	1.4	—	—	—	—	—	—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폐화된 산림을 빠른 시간 내 녹지화를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치산녹화 계획(1979~1987년)이 시행되면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산지자원화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2차 계획의 편성기조는 1차 계획의 녹화위주에서 경제림 조성으로, 정신철학위주에서 기술보급위주로, 타율적 참여에서 국민총력참여로, 규제 위주에서 개발지원위주로 변화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78년) 6년 만에 녹화사업을 조기에 달성하였고 조림량은 133만 8,000본이었다. 제2차 치산녹화계획(1979~1987년)에서 조림량은 498ha에 80만 1,400본이었다. 제3차 치산녹화계획(1988~1997년)에서 조림량은 110.5ha에 19만 920본이었다. 2000년 이후 조림량이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 조림량은 2.4ha에 1,600본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수는 2.0ha에 1,600본, 속성수는 1.0ha에 1,400본이었다.

3. 제조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체의 도산 속출로 인해 의정부시 제조업체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03년 의정부시 업체 수는 166개 업체, 종업원 수 3,011명으로 연간 생산액은 3,382억 1,60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 현재는 새로운 산업 활성화로 인하여 262개 업체로 대폭 증가하였다.

1979년 1월 1일 시행된 「공업배치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제조업이 인구 밀집현상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공장의 지방 분산화를 꾀하고자 추진되었다. 당시 이 법에 의해서 의정부시는 이전 촉진 지역에 포함되었고,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공장의 신·증설과 관내 이전이 규제되어 생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1979년 「공업배치법」 시행으로 지역 내 제조업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1987년 군사 보호구역의 해제 등으로 택지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의정부피혁, 신창전기, 삼천리탄업, (주)인켈, 라성물산, 동화섬유, 혜성제사, 건양페인트, 동양트랜스, 신일직물, 동일염직, 동보실업 등 우수한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하는 등 제조업 퇴조 현상이 가중되었다. 더구나 의정부시 일원의 택지개발 조성 분위기에 편승하여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기업의 신규입지는 주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²

이러한 영향으로 1989년까지 47개 업체가 반월공단 또는 인접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업하여 의정부시에는 112개 업체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0~1991년에 「공업배치법」을 폐지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과거 이전 촉진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새롭게 명칭을 바꾸어 계속 규제하였다. 동법 부칙 제3조는 무등록 공장이 이전 및 개선을 조건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정부시에도 1992년 말 215개 업체가 등록하여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³

의정부시 제조업 종사자 수는 1989년에 112개 업체 6,645명이었으나, 1992년에는

2 의정부시, 『시장백서』, 1997.

3 무등록 공장은 공장 건축 면적이 200㎡ 이상인 등록 의무 대상 공장임에도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을 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 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다.

무등록공장이 포함되어 215개 업체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37명 증가에 그쳐 관내 기업체의 영세화 추세가 뚜렷하였다.

계속된 중·대기업의 타 지역 이전 및 영세기업의 유입현상이 지속되어 1995년에 등록 공장 수는 224개 업체로 소폭 증가한 반면 종업원 수는 5,39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1996년 134개 업체, 종업원 수는 3,775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폭은 1996년 공장 일제조사를 통하여 무단이전, 폐업공장을 정리한 결과였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많은 공장이 도산되기도 하였으나 2012년 말 현재 제조업체 수는 252개 업체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용현산업단지 설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가죽 91개, 전기·전자·의류 64개, 석유·화학 16개, 금속 14개, 식음료 14개, 기계·자동차 13개, 비금속 12개, 목재·인쇄 9개, 가구 7개, 기타 12개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0인 이상 제조업체는 비에이지앤씨, 아카데미과학 등 2개 업체에 불과해 영세한 업체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중첩된 여러 규제법령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의정부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유치가 중요하다. 용현산업단지에 유망 중소기업의



용현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아카데미과학

입주는 물론, 서울 북부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이전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 이외에 자연과학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패션디자인 산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및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등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된 기기, 기술, 역무 기타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의 유치를 활발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연도별 제조업 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도	구분	사업체 수	월평균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생산액	출하액	원제품·반제품·재공품 재고액		주요 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 연말잔액
							연초	연말			
2005		120	2,543	45,467	350,424	349,741	18,874	19,557	223,028	127,396	96,615
2006		311	4,148	66,933	485,388	483,098	39,989	46,335	303,867	181,521	134,805
2007		120	2,543	45,467	350,424	349,741	18,874	19,557	223,028	127,396	96,615
2008		118	2,515	45,876	367,371	367,127	19,016	19,260	241,329	126,042	111,236
2009		121	2,747	49,987	410,342	409,709	22,332	22,965	265,475	144,867	124,414
2010		130	3,014	60,029	—	427,767	46,765	44,725	279,783	145,448	—
2011		121	2,807	60,112	502,336	497,256	20,205	25,285	328,309	174,027	127,105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2011.

비고 : 2007년 이후 수치는 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10인 이상 업체의 자료이다.

연도별 기준으로 의정부시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식료품업은 사업체 수가 2005년 16개, 2006년 20개로 증가하다가 2007년 2개로 급감한 이후 2011년 5개 업체로 소폭 증가하였고, 섬유제품(의복 제외) 사업체 수, 종사자 수도 2005년 51개, 587명, 2006년 80개, 781명에서 2011년 15개, 20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의복·액세서리 등의 업체는 2005년 55개, 844명, 2009년 36개, 710명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에는 42개, 904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수공업 형태의 노동조건으로 종사자 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죽·가방 및 신발 업체도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2007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소규모 증감을 지속하고 있다.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업과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업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1개 업체만 유지되다가 모두 폐업하였고, 2011년 현재 목재 및 나무제품업의 1개



용현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유기

업체만 있는 상태이다. 코크스·연탄 및 석유 정제품업과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업은 1개 업체도 없는 상태이다.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2005년 7개였으나 2011년 1개 업체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업도 2011년 현재 1개 업체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업체 종사자 수는 업체의 경우 2005년 14개에서 2011년 8개로 큰 감소를 보였지만, 종사자 수가 268명에서 234명으로 감소폭이 미미한 것은 이 분야의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금속 광물제품은 2005년 4개 업체, 50명에서 2011년 3개 업체, 63명이 종사하고 있다. 제1차 금속산업은 완전 폐업된 상태에 있다.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업체 수는 20개, 종사자 수 233명에서 2011년 5개 업체, 89명으로 대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05년 12개, 432명에서 2011년 8개, 248명으로 감소하였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2005년 16개, 275명에서 2011년 7개, 236명으로 마찬가지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체 수는 대폭 감소하였는데 반해 종사자 수가 미미하게 감소한 것

은 이 분야들의 고용규모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업처럼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기장비업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서 2005년 14개, 253명에서 2011년 4개, 92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기타 기계 및 장비업은 2005년 4개 업체, 181명이었

〈표 17〉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분 연도	합계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의복제외)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	254	3,751	16	119	—	—	—	—	51	587
2006	310	4,103	20	154	—	—	—	—	80	781
2007	120	2,543	2	—	1	—	—	—	16	259
2008	118	2,515	3	50	1	—	—	—	18	256
2009	121	2,747	5	114	1	—	—	—	18	284
2010	130	3,014	6	122	1	—	—	—	22	314
2011	121	2,760	5	106	—	—	—	—	15	203
구분 연도	의복, 액세서리 등		가죽, 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	55	844	9	154	1	—	1	—	7	114
2006	63	904	13	174	1	—	1	—	7	93
2007	39	735	7	115	—	—	—	—	2	—
2008	40	736	6	85	—	—	—	—	2	—
2009	36	710	6	92	—	—	—	—	2	—
2010	41	802	6	102	—	—	—	—	1	—
2011	42	904	8	187	1	—	—	—	1	—
구분 연도	코르크, 연탄 및 석유 정제품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	—	—	2	—	—	—	14	268	4	50
2006	—	—	2	—	—	—	14	263	4	75
2007	—	—	—	—	—	—	8	200	3	63
2008	—	—	—	—	—	—	8	262	2	—
2009	—	—	1	—	—	—	11	245	1	—
2010	—	—	—	—	1	—	12	272	2	—
2011	—	—	1	—	—	—	8	234	3	63

연도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	1	—	20	233	12	432	16	275	14	253
2006	1	—	18	231	12	426	20	330	17	213
2007	—	—	6	166	10	337	9	277	4	85
2008	—	—	4	101	10	426	9	234	4	62
2009	—	—	5	112	8	345	9	220	5	122
2010	1	—	4	85	9	519	2	205	3	41
2011	—	—	5	89	8	248	7	236	4	92

연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기타 제품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	14	181	2	—	1	—	12	98	—	—
2006	13	140	2	—	2	—	18	186	—	—
2007	6	97	4	77	—	—	—	—	3	62
2008	5	82	2	—	—	—	—	—	1	—
2009	5	98	2	—	1	—	—	—	5	244
2010	7	129	2	—	—	—	—	—	5	226
2011	5	96	2	—	—	—	—	—	5	203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다가 2011년 5개 업체 96명이 되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은 2005년 2개 업체에서 2007년 4개로 늘었다가 2011년 다시 2개 업체가 되었으며, 기타 운송장비업은 2005년 1개, 2006년 2개에서 2011년에는 모두 폐업하였다. 가구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05년 12개 업체, 98명, 2006년 18개 업체, 186명으로 늘어났다가 2009년 이후 운영 중인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기타 제품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07년 3개, 62명에서 2011년 5개, 20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의정부 관내 2013년 9월 현재, 업종별, 고용별, 규모별 공장등록 현황을 개별입지, 계획입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별입지는 민간이 자유의사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계획입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을 위해 만든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 임대받아 공장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섬유 의복 가죽 96개소, 전기전자 의료 73개소, 석유 화학 16개소,

금속 15개소, 기계자동차 13개소, 비금속 12개소, 기타 12개소, 가구 8개소 순으로 나타나며, 개별입지에 비해 계획입지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석유화학, 기계자동차 업종이다. 이는 용현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 현황을 보면, 총 3,895명 중 남자 2,265명, 여자 1,630명으로 남성 비율이 훨씬 높고, 외국인 비율도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입지보다 계획입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1.35배 이상 높다.

규모 현황을 보면, 271개 업체에 3,895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 중 대기업은 전무하다. 중기업은 13개 업체, 종사자 수 1,072명, 소기업은 258개 업체, 종사자 수 2,823명이다. 종사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의정부 지역 공장의 영세성을 보여준다.

〈표 18〉 업종별 공장등록 현황

(2013년 9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식음료	섬유·의복·가죽	목재·인쇄	석유·화학	비금속	금속	전기·전자·의료	기계·자동차	가구	기타
계	271	16	96	10	16	12	15	73	13	8	12
개별입지	153	13	56	6	4	6	8	41	3	7	9
계획입지	118	3	40	4	12	6	7	32	10	1	3

자료 :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표 19〉 고용 현황

(2013년 9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합 계	남			여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3,895	2,265	2,182	83	1,630	1,609	21
개별입지	1,652	892	874	18	760	759	1
계획입지	2,243	1,373	1,308	65	870	850	20

자료 :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표 20〉 규모별 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13년 9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업체수	271	—	13	258
종사자수	3,895	—	1,072	2,823

자료 :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비고 : 대기업 300인 이상, 중기업 50인 이상~300인 미만, 소기업 50인 미만이다.

4. 유통 · 금융 · 서비스업

1) 유통업

의정부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2000년대에 등장한 대형할인점이 시설 및 매장환경, 주차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 카드와 상품권 발행, 영업시간의 연장 등으로 재래시장 상권을 잠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시 정부는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과 상인조직의 활성화, 의식개혁 등으로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2년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대형마트 규제의 영향으로 전체 소매시장이 3.8% 성장에 그치고, 규제를 많이 받은 대형마트는 1.4%의 한 자리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소량 구매 패턴의 확산으로 편의점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온라인 쇼핑물도 낮은 가격과 편의성을 강점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의정부 유통업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 3개소, 백화점 1개소, 시장 5개소(등록시장 1개소, 인정시장 2개소, 상점가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특히 2011년 허가를 받아 2012년 신세계백화점 의

〈표 21〉 연도별 유통업체 현황

(단위 : 개)

연도	구분	합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기타 대규모점포
							등록시장	인정시장	
2008		7	—	—	—	3	2	2	—
2009		7	—	—	—	3	2	2	—
2010		9	2	—	—	1	1	2	3
2011		9	3	—	1	—	1	2	2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원 자료에 오류가 있어 2011년 합계수치를 정정하였다.

〈표 22〉 대규모 점포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m²)

구분	시장수	점포	매장면적
대형점	3	268	47,906
백화점	1	310	51,403
시장	3	785	—



의정부역 지하상가

정부점이 개관이 되어 역세권 상권이 활성화되었으며, 반면 쇼핑센터는 2011년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제일시장 외에 의정부동 148-1번지 일대 의정부시장, 의정부동 30-8번지 일대 의정부청과야채시장 2개소를 2005년 4월 의정부시장으로 등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면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점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녹색거리, 의정부역 지하상가, 로테오거리 등이 상인회를 조직, 등록하고 상점가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초 현재 5개의 대형 점포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2개 점, 신세계백화점 등이 있으며, SSM(준 대규모점포)는 롯데쇼핑, GS, 삼성테스코, CS유통 등 19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다. 추가로 2013년 7월 이마트 의정부점이 개장하고, 2014년 3월 코스트코가 개점을 할 예정이다.

도매 및 소매업은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으로 구분된다. 2011년 현재 사업체 수가 5,796개로 가장 많았다. 개인 사업체 수는 2007년 5,148개 이후 증가를 보이다가 2010년 5,291개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다시 증가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심하다. 3년간 평균을 보면, 사업체 수에서 경기도 전체의 3.6%, 종업원 수에서 3.3%를 차지한다. 조직형태별로는 경기도 전체 3년 평균에 비해 사업체 수, 종업원 수 모두에서 개인 비율이 회사 법인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표 23〉 조직형태별 도매 및 소매업 현황

(단위 : 개 · 명 · %)

연도	구분	사업체수					종업원수				
		합계	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회사 이외 법인	비법인	합계	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회사 이외 법인	비법인
2007		5,478	5,148	316	12	2	15,627	12,175	3,397	51	4
2008		5,601	5,260	323	14	4	15,699	12,095	3,503	91	10
2009		5,676	5,304	352	18	2	16,900	13,058	3,737	100	5
2010		5,699	5,291	393	13	2	16,341	12,429	3,843	64	5
2011		5,796	5,352	427	13	4	17,035	12,886	4,075	66	8
3년평균	의정부시	5,724	5,315	391	15	3	16,759	12,791	3,885	77	6
	경기도	158,780	140,874	16,890	967	49	519,629	328,684	175,350	7,365	229
구성비	의정부시	100.0	92.87	6.83	0.25	0.05	100.0	76.32	23.18	0.46	0.04
	경기도	100.0	88.72	10.64	0.61	0.03	100.0	63.25	33.75	1.42	0.04

출처 : 의정부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의정부시,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2011; 『경기통계』, 경기넷(<http://www.gg.go.kr>).

2) 금융업

금융 및 보험업은 금융업,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은 은행, 보험, 증권, 농협, 수협, 축협, 기타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1) 은행

중앙정부의 금융정책에 의해 은행 점포 수의 변동이 심한데, 2011년 의정부시 금융기관을 보면, 우리은행 6개 지점, 국민은행 9개 지점, 외환은행 2개 지점, 신한은행 6개 지점, 시티은행 1개 지점, 하나은행 3개 지점 등이 영업활동을 하였다. 1997년 외환

〈표 24〉 연도별 금융기관(은행) 현황

(단위 : 개)

구분 연도	계	한 민 이 행	시중 은행																		
			계	조 흥	우 리	제 일	한 일	서 울	국 민	한 국 외 환	신 한	한 미	시 티	하 나	보 람	평 화	한 국 상 업	서 울 신 탁	동 화	동 남	대 동
1993	12	1	11	3	—	1	1	2	2	1	1	—	—	—	—	—	2	—	—	—	
1994	13	—	13	3	—	1	1	3	2	1	1	—	—	—	—	1	—	—	—	—	
1995	16	—	16	3	—	1	2	3	2	1	1	—	—	—	1	1	—	1	—	—	
1996	20	—	20	3	3	1	2	3	2	1	1	—	—	—	1	—	—	1	2	—	
1997	21	—	21	4	4	1	2	3	2	1	1	—	—	—	1	—	—	1	1	—	
1998	20	—	20	4	3	1	3	2	2	1	1	2	—	—	1	—	—	—	—	—	
1999	18	—	18	2	4	1	—	2	2	1	2	2	—	1	—	1	—	—	—	—	
2000	19	—	19	2	4	1	—	2	2	1	3	2	—	1	—	1	—	—	—	—	
2001	21	—	21	2	5	1	—	2	5	1	2	2	—	1	—	—	—	—	—	—	
2002	21	—	21	2	5	1	—	—	5	1	2	2	—	3	—	—	—	—	—	—	
2003	25	—	25	3	5	2	—	—	7	2	3	—	—	3	—	—	—	—	—	—	
2004	26	—	26	3	5	2	—	—	7	2	3	—	2	2	—	—	—	—	—	—	
2005	30	—	30	4	5	2	—	—	8	2	4	—	2	3	—	—	—	—	—	—	
2006	31	—	31	—	6	2	—	—	9	2	7	—	2	3	—	—	—	—	—	—	
2007	32	—	32	—	6	2	—	—	9	2	8	—	2	3	—	—	—	—	—	—	
2008	31	—	31	—	6	2	—	—	9	2	7	—	2	3	—	—	—	—	—	—	
2009	30	—	30	—	6	2	—	—	9	2	6	—	2	3	—	—	—	—	—	—	
2010	29	—	29	—	6	2	—	—	9	2	6	—	1	3	—	—	—	—	—	—	
2011	28	—	28	—	6	2	—	—	8	2	6	—	1	3	—	—	—	—	—	—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① 서울은행은 서울신탁은행을 인수하였고(1976. 6), 서울신탁은행에서 서울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1995), 이후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2002. 12).

② 국민은행은 대동은행을, 주택은행은 동남은행을, 경기은행은 한미은행을 인수하였다(1998. 6).

③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을 통합하여 한빛은행을 만들었고(1998. 7), 한빛은행은 평화은행을 인수하였으며(2001. 12), 상호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하였다(2002. 5).

④ 국민은행은 한국주택은행을 인수하였다(2001. 11).

⑤ 원자료에 오류가 있어 2011년 하나은행 수치를 정정하였다.

〈표 25〉 금융기관 예금·대출·어음 현황^①

(단위 : 십억원)

구분 연도		예금 총계	저축성예금				
			계	정기예금 ^㉞	정기적금	자유저축예금 ^㉟ (저축예금)	기타
1994 [㉠]		8,794.0	—	—	—	—	—
2002		2,377.1	1,855.9	923.2	119.5	507.2	305.9
2003		2,368.9	1,855.3	931.1	112.4	513.1	298.7
2004		2,292.0	1,872.7	955.0	111.9	494.8	311.1
2005		2,452.6	1,924.3	978.5	103.7	528.9	313.3
2006		2,561.4	1,968.2	1,000.0	95.6	549.4	323.1
2007		2,755.3	2,113.2	1,161.3	83.4	524.5	344.0
2008		3,075.0	2,496.1	1,590.3	99.5	516.6	289.7
2009		3,422.2	2,761.8	1,597.1	135.4	659.0	370.3
2010		3,327.8	2,714.9	1,512.7	141.9	718.3	342.1

구분 연도	요금불 예금	대출	어음교환				
			장수(천장)	금액	장당 평균금액 (천원)	부도액 [㉡]	부도율 [㉢]
1994	—	5,518	10,718	—	641	—	—
2002	521.3	2,609.2	21,483.9	11,023.6	513.1	50.2	0.46
2003	513.6	3,280.6	17,708.0	9,243.0	522.0	58.6	0.63
2004	419.3	3,689.8	15,691.0	8,285.0	528.0	61.6	0.74
2005	528.3	4,006.0	14,737.0	8,107.4	550.1	52.6	0.65
2006	593.2	4,537.5	14,327.3	7,664.1	534.9	36.7	0.48
2007	642.1	5,004.9	15,037.2	8,918.3	593.1	93.3	1.05
2008	578.9	5,566.8	14,319.8	11,395.0	795.7	31.8	0.28
2009	660.4	5,847.8	13,173.4	10,899.7	827.4	30.0	0.28
2010	612.9	5,959.4	—	—	—	—	—

자료 : 한국은행 경기본부 내부자료

비고 : ① 예금 취급점포 기준이다.

② 정기예금은 동업자 예금 제외이다.

③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이 통합하였다(1997. 7. 7).

④ 부도액은 전자결제 조정 전 금액이다.

⑤ 부도율은 어음교환액에 대한 부도액의 비율이다.

⑥ 1994년의 통계수치는 당해연도 『통계연보』에도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있다.

위기 이후 금융권의 인수합병에 의해 대형 은행이 출현하고 소형 은행은 해산되었으며, 시중은행 전체 수는 미미하게 매년 증가하여 2011년 기준 28개의 점포가 운영 중에 있다.

2013년 현재는 신한은행 6개, 국민은행 7개, 우리은행 5개, 하나은행 3개, SC제일은행 2개, 한국외환은행 1개, 한국씨티은행 1개, KDB산업은행 1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다.

의정부 금융기관 예금, 대출, 어음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금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기준 3,327.8억 원, 대출액 5,959.4억 원의 실적을 나타냈다.

(2) 보험

의정부 지역의 생명보험회사 점포 수는 교보생명보험 10개, KDB생명보험 3개, 한화생명보험 8개, 동양생명보험 4개, 삼성생명보험 9개, 신한생명보험 1개, 알리안츠생명보험 1개, 미래에셋생명보험 1개 등 8개의 회사, 손해보험회사 점포수는 동부화재해상보험 5개, 삼성화재 해상보험 6개, 한화손해보험 2개, 흥국화재보험 1개, LIG손해보험, 현대화재해상보험 1개, 롯데손해보험 1개 등 7개의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3) 증권

의정부 지역에는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LIG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동양증권증권,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10개 증권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4) 기타 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으로는 농업협동조합(NH농협은행) 본점, 시지부 외에 14개 지점, 1개 출장소, 1개 영농센터가 있으며, 양주산림조합 1개, 축협 본점, 지점 3개, 지소 1개가 있으며, 새마을금고 본점 5개소, 지점 14개소가 증설·운영되고 있다.

3) 서비스업

(1) 수출입 통관실적

수출입 통관 실적은 2009년 합계 3억 7,660만 5,000불에서 2010년 4억 5,548만 1,000불로 전년 대비 20.9%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은 14.4%, 수입은 49.6% 증가하였고, 2억 4,705만 5,000불의 수출입초과실적을 나타냈다.

〈표 26〉 수출입 통관 실적

(단위 : 천불)

연도	구분	합계	수출	수입	수출입초과
2009		376,605	306,922	69,683	237,239
2010		455,481	351,268	104,213	247,055

자료 : 경기도 기업지원과 내부자료.

(2)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실적

초기 외국인이 투자한 사업에서 광업, 제조업은 없고 전부 비생산적인 서비스업종으로 의정부시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2001년 56만 불에서 2002년 12만 6,000불로 77%나 감소하였다. 업체 수도 2000년 6개에서 2001년에 11개로 늘어났다가 2010년에는 2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외국인이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표 27〉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실적

(단위 : 천불)

연도	구분		농림수산업 ·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0	6	240	—	—	—	—	6	240	—	—
2001	11	560	—	—	—	—	11	560	—	—
2002	2	126	—	—	—	—	2	126	—	—
2009	6	276	—	—	—	—	6	276	—	—
2010	2	865	1	702	1	163	8	750	—	—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 경기도 투자지원과 내부자료.

비고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금액 기준이다.

있는 투자여건이 의정부시 지역에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투자할 만한 사업종류가 없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농림수산업·광업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실적이 86만 5,000불로 급증하였다.

(3) 기타 서비스업

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관련하여 2005년 기준 의정부시 사업체 수는 561개 업체, 종사자 수는 3,175명이고, 경기도 전체 사업체 수는 1만 3,137개 업체, 종사자 수는 15만 4,074명이었다. 2011년 기준 의정부시 사업체 수는 272개 업체, 종사자 수는 3,248명이고, 경기도 전체 사업체 수는 7,376개 업체, 종사자 수는 13만 4,459명이었다. 2005년과 2011년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의정부시 사업체 수는 289개 업체가 감소한 반면 종사자 수는 73명 감소에 불과하다. 사업체 수의 감소에 비해 종사자 수는 유지되고 있다.

〈표 28〉 경기·의정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현황 비교

(단위 : 개·명)

구분 연도	경기도		의정부시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	13,137	154,074	561	3,175
2006	14,550	173,681	627	3,671
2007	4,886	82,036	198	1,832
2008	5,283	91,061	395	4,241
2009	5,611	103,222	256	3,341
2010	6,414	114,894	268	2,872
2011	7,376	134,459	272	3,248
3년 평균	6,467	117,525	265	3,154

②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2005년 기준 의정부시 사업체 수는 57개 업체, 종사자 수는 4,112명이고, 경기도 전체 사업체 수는 1,687개 업체, 종사자 수는 8만 4,368명이었다. 2011년 기준 의정부시 사업체 수는 56개 업체, 종사

자 수는 5,192명이고, 경기도 전체 사업체 수는 1,713개 업체, 종사자 수는 10만 1,633명이었다. 2005년과 2011년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의정부시 사업체 수는 1개 업체가 감소한 반면 종사자 수는 1,080명이 늘어 사업체 수의 감소에 비해서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표 29〉 경기·의정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 현황 비교

(단위 : 개·명)

구분 연도	경기도		의정부시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	1,687	84,368	57	4,112
2006	1,638	83,560	58	4,341
2007	1,642	88,990	60	4,714
2008	1,612	92,926	90	4,996
2009	1,622	108,524	58	5,523
2010	1,710	111,590	59	5,175
2011	1,713	101,633	56	5,192
최근 3년 평균	1,682	107,249	58	5,297

③ 교육 서비스업

2005년 기준 의정부시 교육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991개 업체, 종사자 수는 9,698명이고, 경기도 전체 사업체 수는 2만 5,232개 업체, 종사자 수는 23만 7,831명이었

〈표 30〉 경기·의정부 교육 서비스업 현황 비교

(단위 : 개·명)

구분 연도	경기도		의정부시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	25,232	237,831	991	9,698
2006	27,410	261,281	1,078	10,895
2007	34,089	287,420	1,302	11,177
2008	34,578	295,678	3,410	25,402
2009	35,185	306,183	1,366	12,117
2010	36,622	322,010	1,373	12,080
2011	37,849	324,644	1,427	12,380
최근 3년 평균	36,552	317,612	1,389	12,192

다. 2011년 기준 의정부시 교육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1,427개 업체, 종사자 수는 1만 2,380명이다. 경기도 전체 사업체 수는 3만 7,849개 업체, 종사자 수는 32만 4,644명이다. 2005년과 2011년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의정부시 교육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398개 업체, 종사자 수는 2,494명이 증가하였다.

④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5년 기준 의정부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579개 업체, 종사자 수는 5,033명이고, 경기도 전체 사업체 수는 1만 5,754개 업체, 종사자 수는 12만 1,619명이었다. 2011년 기준 의정부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1,123개 업체, 종사자 수는 9,706명이고, 경기도 전체 사업체 수는 2만 5,815개 업체, 종사자 수는 23만 756명이었다. 2005년과 2011년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의정부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544개 업체, 종사자 수는 4,673명이 증가하였다.

〈표 31〉 경기·의정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현황 비교

(단위 : 개·명)

구분 연도	경기도		의정부시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	15,754	121,619	579	5,033
2006	17,070	133,644	621	5,445
2007	18,227	152,143	751	6,748
2008	20,767	175,251	1,818	17,358
2009	22,023	192,459	1,002	8,550
2010	24,202	216,982	1,092	9,292
2011	25,815	230,756	1,123	9,706
최근 3년 평균	24,013	213,399	1,072	9,183

5. 지식·정보·문화산업

1) 지식산업

지식정보산업(정보산업)은 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오늘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의 산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차산업’이라 분류되기도 하며, 광의로는 교육·출판·인쇄·신문·방송·통신 등 과거부터 있었던 지식에 관련된 산업까지도 포함하므로 ‘지식산업’이라고도 한다. 협의로는 컴퓨터·반도체·통신기기를 비롯한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처리업, 정보통신업 등 컴퓨터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산업을 의미한다.

지식정보산업이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정보의 상품적 가치를 부각시켜 정보유통 분야에 자본과 경영, 전문 인력과 연구개발 등을 투입하는 산업조직을 의미한다. 지식정보산업은 e-learning(e-learning 기획,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 등으로 정의된다. 기타 PB(Private Brand)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미래 서비스업, 가상세계 및 가상 현실성(스크린 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공업 등)이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지원

선진국 대학의 사례인 실리콘벨리를 벤치마킹하여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센터(BI) 건립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의정부시도 「수도권 정비법(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따른 산업 발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학협력협정(1999. 6. 17)을 체결하고, 관내 2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신홍대학교가 2009년 8월 건물 노후화로 운영을 못하게 되어 현재 경민대학교만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용현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용도지역 위반 공장을 이전 수용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의정부 지역이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용현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2000년 7월 27일 완공되었다. 산업단지는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현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32〉 용현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m^2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345,546.5 (100.0)	210,423.2 (60.9)	46,161.6 (13.4)	58,509.9 (16.9)	30,451.8 (8.8)

출처 : 의정부시, 『시정백서』, 2011.

용현산업 및 농공단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기준으로 총면적은 34만 6,000 m^2 에 분양면적은 20만 7,000 m^2 로 6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단지 내 입주업체는 113개 업체, 종업원은 2,145명에서 생산액 1,300억 원, 수출액인 4,200만 불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33〉 용현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연도	구분	총면적 (천 m^2)	분양면적 (천 m^2)	입주업체수 (개)	가동률 (%)	종업원수 (명)	생산액 (억원)	수출액 (백만불)
2004		346	210	79	96.2	1,848	1,698	61
2005		346	210	88	97.7	1,883	1,711	62
2006		346	210	93	93.0	1,955	1,644	58
2007		346	210	99	98.0	1,906	1,565	53
2008		346	210	96	95.0	1,951	1,680	56
2009		345	207	113	99.1	2,145	1,300	42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2) 정보산업

1990년대 우리나라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도로·항만에 필적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로 인식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을 21

세기를 대비하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 산업기반을 범국가적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7년 제1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2년 제2차 계획, 그리고 2007년 'U-Life21'이라는 제3차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 수립의 목적은 ① 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지역정보화 추진 등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② 부처 간 지역정보화 서비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③ 표준화된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정보의 공동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의 등장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역정보화는 대도시에 편중된 정보를 지역에 고르게 나누어 서울과 지방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에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도 2000년 5월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여 민·관·산·학 등 전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조직하고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 정보문화도시 육성을 구호로 지역특성과 실천 가능한 분야를 고려한 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계획과 연계하여 주민정보화교육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정보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민정보화교육의 경우 매년 6,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06년 의정부시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U-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의정부시의 지식정보 인프라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센터

의정부시는 2003년 12월 최첨단 도서관시설을 갖춘 정보도서관을 개관한 이후 서부에 편중된 문화기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07년 5월, 10월에 각각 어린이도서관, 과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과학도서관은 도서관과 교육·전시·체험문화가 접목

된 과학체험의 장으로 기존 도서관의 틀을 혁신한 지식문화의 종합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시각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목점자 혼용 도서와 점자도서 및 영어원서를 구비하여 어린이들에게 더욱 폭 넓은 자료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 북부 최고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발돋움하였다.

〈표 34〉 연도별 공공도서관 현황

연도	구분	직원수 (명)	도서관수 (개소)	좌석수 (개)	자료수 (권)	연간 대출자수 (천명)	연간 이용자수 (천명)	연간 이용횟수 (회)	예산 (백만원)
2006		20	1	971	132,623	750	1,279	—	1,770
2007		41	3	2,318	281,043	1,240	1,797	—	2,473
2008		44	3	2,318	339,608	—	1,667	1,997,154	3,895
2009		44	3	2,318	339,608	—	1,667	1,997,154	3,895
2010		46	3	1,422	377,321	434	1,817	2,637,221	3,632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과학도서관은 추동근린공원 내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책 읽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연적 요소를 도서관 내외부 공간에 적절하게 배치한 친환경적 도서관이자 도서관 어디에서든 가능한 무선인터넷 시스템과 24시간 무인 예약대



과학도서관

출 및 반납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도서관으로 건립되었다. 정보도서관은 직동근린공원 내에 위치하여 세련되고 미려한 외관과 대로변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치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또한 자동화된 공조시스템을 통하여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하는 시설도 충분하게 갖춘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는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RFID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타 도서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회룡로에 위치하여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였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건립되었으며, 개방적인 실내 공간 구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표 35〉 정보도서관 현황

도서관명 (준공일)	위치	대지면적 (㎡)	건축연적 및 구조				건축비 (억원)
			층수	연면적(㎡)	구조	주요설비	
과학도서관 (2007. 4)	추동로 124번길 52	9,386	지하1층 지상3층	6,951.7	RC조	공조시스템 중앙냉난방	174
정보도서관 (2003. 7)	의정로 41	16,685	지하1층 지상4층	8,901	RC조	공조시스템 중앙냉난방	167
어린이도서관 (2007. 2)	회룡로 79	1,769	지하1층 지상3층	2,185.05	RC조	공조시스템 중앙냉난방	52

출처 : 의정부시, 『시정백서』, 2011.

(2)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

의정부시는 군사도시 이미지에 벗어나서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이미지를 창출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북카페 열린문고 설치 등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책 읽는 문화의 활성화로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의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6〉 통합도서관 하나로 시스템 구축 계획

(2013년 기준)

사업명	대상	주요내용	소요예산(천원)
사립 작은도서관 통합 시스템 구축	사립작은도서관(17개소, 도서 6만 권)	통합 도서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145,000
북쉐어 시스템 1단계 구축	대학교(2개교), 초·중·고(64개교)	기관별 통합 검색기능	33,000
책 읽는 도시, 의정부 통합 홈페이지 구축	공공도서관(3개소), 작은도서관(33개소), 북카페(24개소), 열린문고(19개소)	도서관 및 독서환경 인프라 통합 및 사용자 환경 개발	20,000

출처 : 의정부시, 『희망도시 의정부, 2013 시정 주요업무계획』, 2012.

시민공감 독서진흥사업 추진

- 북카페 및 열린문고 설치 확대 운영 : 6개소, 6700만 원
-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 9개 강좌 200명, 3,200만 원
- 한 도시 한 책 읽기 지속 추진 : 1,200만 원
- 다양한 독서 참여 프로그램 운영 : 1,400만 원
 - 독서경진대회, 시민 도서관 아카데미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 의정부 희망 Library Center 운영 : 전담인력 3명 배치, 8,400만 원
 - 스마트 자동화 도서관 및 관리 운영 : 1,500여 권
- 공·사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 31개소, 4억 1,000만 원
 - 2013년 사립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 2개소, 4,000만 원

의정부 통합도서관 하나로 시스템 구축

- 도서관 및 독서환경 인프라 통합 및 사용자 환경개발 : 1억 9,800만 원

(3) 지식정보 문화 프로그램 운영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여가 문화의 활용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 및 강좌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문화행사 및 강좌가 우수한 강사진과 강의 내용으로 고품격의 문화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화행사로는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별로 행사를 주관하여 2011년 중 7만 7,979명이 참여하였다. 문화강좌는 대부분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중 총 79개 강좌에 8,455명이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2011년 중 15개 강좌에 285명이 등록하였다. 천문우주체험은 상시운영과 특별행사로 구분하여 2011년에 6만 7,006명이 참여하였다. 2013년도에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독서

진흥사업 및 테마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주말 도서관 문화 체험학교 및 아동도서관 대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3) 문화산업

(1) 문화산업의 현황

의정부시 소재 문화예술단체로는 의정부문화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의정부지부, 의정부시립합창단 등이 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단별 인력 현황 추이는 <표 37> 및 <표 38>과 같다.

<표 37> 문화예술단체 현황

구분 \ 단체명	의정부문화원	예총 의정부지부	의정부시립합창단
설립	1989. 12. 23	1993. 9. 16	2004. 1. 10
위치	신곡동 793	의정부2동 477-1	-
대표	원장 조수기	회장 김용남	단장 추회경
회원수	860명	755명	45명
임원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사 17명, 감사 1명	지부장 1명, 부지부장 3명, 감사 2명	-
주요사업	• 향토문화 교육 : 문화학교 운영, 문화유적지 탐방 • 문화행사 : 회룡문화제, 문화가산책, 도민속예술제, 전통민속놀이 지원, 야외물놀이 축제	• 사진, 미술, 문인, 무용, 음악, 연극, 국악, 연예, 영화인협회 운영 • 통일예술제 등 문화예술행사 운영 및 지원	• 정기연주회, KBS 열린음악회,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참가

출처 : 의정부시, 『시정백서』 2011.

<표 38> 시립 예술단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무용단(2002. 2. 9 창단)	27	27	35	50	30	27
합창단(2004. 1. 10 창단)	37	37	53	70	40	47
소년소녀합창단(1998. 10. 10 창단)	58	58	87	120	4	4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민간단체 예술단을 제외한 시립 공연예술단 현황으로 정원기준이며 비상임 인력이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는 의정부예술의전당

(2) 문화 인프라 현황

의정부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공연 프로그램이 풍부한 편이다. 특히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품격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 통합도서관 하나로시스템 구축, 맞춤형 독서진흥산업 및 테마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말도서관 문화체험학교 운영 등 의정부시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인 노원구 주민들도 이러한 문화적 수혜를 함께 받고 있다.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센터인 의정부예술의전당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의정부의 지명 유래와 연계해 의정부의 상징성과 특징을 살리는 조형미를 추구하여 예술성 및 실용성을 갖추었다. 문화예술 활동의 중추적 공간인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이 상호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2011년에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의정부시가 한국의 제1음악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천상병예술제와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등의 차별화된 행사와 국제서예대전을 개최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대학, 언론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음악도시의 이미지를 확산하고 고품격의 풍성한 공연을 준비하는 등 지방문화회관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부의 명품거리인 행복로를 배경으로 2011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각종 지역 사회단체들의 행사가 훌륭하게 진행되었다. 행복로는 향후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계절별·테마별 행사로 시민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사업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문화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지역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회룡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의정부청소년수련관은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문화 교육과 체험 활동공간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39〉 문화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시설 현황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2동	대극장(1,025석), 소극장(237석), 국제회의장, 전시장 및 레스토랑 각 1개소, 주차장
의정부청소년수련관	의정부동	종합안내소, 수영장, 헬스장, 한울관(231석), 정보문화센터(탁구장, 어울림터, 독서실, 정보마당, 노래부스, 북카페 등 13개실)
의정부문화원	신곡동	놀이마당, 문예극장(140석), 놀이방, 향토사랑방, 문화사랑방, 예술사랑방, 센터사랑방

출처 : 의정부시, 『의정부시 관광종합개발계획』, 2012.

연도별 의정부의 문화공간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시설, 기타 시설별로 살펴보면 〈표 40〉, 의정부 언론매체를 방송사, 신문사,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연도별 의정부 출판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자출판시대의 출현으로 서적 출판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기타 인쇄물과 인쇄업 등은 거의 사라진 상태에 있다.

〈표 40〉 연도별 문화공간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영화 상영관	미술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2004		1	3	—	2	1	1	—
2005		1	18	—	2	1	1	—
2006		1	15	—	2	1	1	—
2007		1	17	1	—	—	1	1
2008		1	15	—	—	1	1	—
2009		1	1(9)	1	—	1	1	—
2010		1	1(9)	1	—	1	1	—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 안은 스크린 수이다.

〈표 41〉 연도별 언론매체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방송사	신문사			기타
		TV · 라디오	계	종합일간	주간	종합유선
2004		—	10	—	10	2
2005		—	3	—	3	2
2006		—	12	—	12	2
2007		—	14	1	14	2
2008		—	15	1	14	2
2009		—	15	9	14	2
2010		—	15	9	14	—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 연도별 출판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현황

(단위 : 개 · 명)

연도	구분		서적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업		기타 인쇄물		인쇄업		인쇄 관련 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4			1	4	5	178	53	115	—	—	—	—
2005			4	20	7	79	48	124	—	—	—	—
2006			3	5	6	102	43	104	—	—	—	—
2007			3	9	8	90	1	2	1	2	5	26
2008			3	9	9	123	1	4	1	2	8	26

연도	구분		서적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업		기타 인쇄물		인쇄업		인쇄 관련 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9	4	11	9	110	1	3	33	82	3	9		
2010	4	11	9	87	1	1	-	-	-	-		

출처 :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사업체조사보고서』; 의정부, 『통계연보』, 2011.

(3) 문화예술행사

향토축제는 그 나라 또는 지방의 풍토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오랜 역사와 생활 속에서 이어져 온 것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게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관광대상이 될 수 있다. 의정부시의 주요 문화예술행사는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등이 있다.

회룡문화제는 1972년부터 시민의 날 행사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던 것에서 기원하는데 1986년부터 전 시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매년 10월경에 개최하며 왕실행차재현, 우리문화체험마당, 국악공연, 전통무용공연, 대중가수초청공연, 각종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회룡문화제는 ‘한마음으로 전통 속에 새로운 문화창조’라는 구호 아래 의정부시 전통문화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문화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의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고 전통과 현대문화의 어울림 속에 시민화합을 창출하는 의정부시의 대표적 전통문화축제이다. 의정부문화원이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6회째 개최하고 있다.

통일예술제는 1993년부터 우리나라 통일을 염원하는 예술인들, 의정부지부 예술인들이 주최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축제로 시작되었다. 통일을 테마로 하는 문화예술축제로 해외동포 예술인들과 지역예술인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연예술의 발전과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승화시켜 통일을 앞당기고 의정부시가 통일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6월에 개최한다. 2013년 6월 7~9일에 제20회 하나로 가는 통일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첫째 날 6월 7일은 개막과 함께 의정부시립합창단 공연과 유스챔버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졌다. 남과 북이 전쟁으로 흘린 눈물과 통한의 아픔을 표현한 무용공연 ‘흘린 눈물 하나 뒹의 웃음으로’와 탈북예술단의 북한노래와 공연, 그리고 평양백두한라예술단 공연이



제28회 회룡문화제(2013년)



제18회 통일예술제(2011년)

진행되었고 철쭉가요제 결승전이 열렸다. 둘째 날에는 제1회 통일마라톤이 개최되었고, 날개를 달다 청소년 동아리팀의 공연, 미2사단 한꿈학교 합창단 그리고 투피모던 팝스 오케스트라 협연도 이어졌다. 연극 공연, 뮤지컬 갈라쇼, 국악공연 ‘그리움과 한의 통일아리랑’, 우리지역 가수초청 공연 등도 열렸다. 셋째 날은 폐막행사로 단오축제 ‘살판’ 공연이 길놀이 고사, 타악퍼포먼스 등으로 힘차게 시작되었다. 도깨비와 황소탈 인형극 공연과 지역대학 동아리팀의 공연이 있었으며, 제5회 대한민국 신세대가요제와 화려한 불꽃축제 및 풍등날리기 등도 함께 열렸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21세기 공연예술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장르인 음악극의

〈표 43〉 2011년 문화예술행사 개최 추진실적

행사명	기간	사업비(천원)	참여인원(명)	주요 행사 내용
회룡문화제	2011. 10. 7 ~ 10. 9	170,000	60,000	개막식 축하공연, 회룡기념공원, 회룡난장, 하하페스티벌, 방과후 페스티벌, 비보이페스티벌, 전통놀이경연대회, 회룡총누리, 종합전시회, 의정부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시민참여행사 등
통일예술제	2011. 6. 3 ~ 6. 5	104,500	50,000	개막행사, 국악공연, 무용공연, 철쭉가요제, 줄마로네스트, 예술단 초청공연, 각 협회별 행사 등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2011. 5. 10 ~ 5. 27	645,500	101,429	해외단체초청공연, 국내 예술단체초청공연, 프리지공연 및 심포지엄, 전시행사 등

출처 : 의정부시, 『시정백서』, 2011.

진흥과 보급을 위한 국제공연 예술축제이다.

의정부시는 향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진흥(2013년 77억 6,100만 원 투입 계획)으로 도시 이미지의 개선과 품격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지정·보존·정비할 계획(2013년 6억 7,300만 원 투입 계획)이며 비보이 문화 활성화를 위한 R-16 Korea 한국대표 선발전, 주말 정기 비보이 공연, 행복로 비보이 거리 조성 등 사업에 2013년 1억 5,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표 44〉 2013년 문화·예술 진흥 계획

문화·예술 진흥 사업명	내용
시립예술단(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
축제 개최(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국제음악극축제, 천상병 예술제)	4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국악, 음악, 무용, 연극) 추진	4종 70회
예술의전당 기획프로그램 시행(예술영재아카데미 등)	130종 654회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시행	34회
예총 산하 예술단체별 기획프로그램 지원	10종
예술제 참가 예술단체 지원	아마추어 연극제 등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	7,700명
306보충대 입대 징병을 위한 음악지원프로그램 운영	연 8회
국제우호도시 예술단 교류 공연	—
문화예술법인·단체 지원(의정부예술의전당, 예총의정부지부, 의정부문화원)	—

출처 : 의정부시, 『희망도시 의정부, 2013 시정 주요업무계획』, 2012.

(4) 전통문화재 현황

의정부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북관대첩의 숨은 주역인 정문부 장군 묘, 한글 창제의 공로가 많은 신숙주 묘, 조선후기 실학자로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으로 여생을 장암동에서 보낸 서계 박세당 사랑채 등 도지정문화재와 향토유적을 포함해 전통문화재 25점을 보유하고 있다. 도지정문화재 중 아외에 노출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근로 및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 문화재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문화재보존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 문화재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없고, 지방지정문화재는 2009년 이후 유형문화재 5점, 기념물 4점, 무형문화재 1점, 문화재자료 7점으로 변동이 없다.



사계 박세당 사랑채

6. 관광산업

관광업, 즉 관광사업(travel industry)이란 관광 왕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을 말하며, 관광객에게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영업의 총체이다. 관광사업은 다양한 관광활동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법,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7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1) 관광자원 현황

관광자원을 분류하면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 위락관광자원으로 분류된다. 의정부 지역은 관광산업이 아직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정된 분야만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의정부시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관광자원만을 소개한다.



망월사 해거국사부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자연관광자원은 자연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위대한 선물이다. 자연관광자원은 흔히 인간의 노동력과 자본이 투하되지 아니한 상태하에서 존재하지만, 국토개발과 자원보전의 입장에서 인간의 노동력과 자본이 투하되더라도 자연경관지로서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면 자연관광자원이 된다. 자연관광자원은 국립공원, 국유림지,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역공원으로 분류된다. 의정부시는 도봉산과 사패산을 감싸 안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수락산, 천보산이 있으며, 지역근린공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화관광자원은 한 나라, 한 민족의 고유한 전통적인 문화를 반영해주는 자원으로서 다양한 유형·무형의 문화재가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전통적 건조물, 세시풍속 및 중요민속자료 등이 있다. 유형문화재는 일반적으로는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을 말한다. 의정부시의 유형문화재를 보면, 경기도 유형문화재 5점, 경기도 문화재자료 7점, 경기도

기념물 4점, 의정부시 향토유적 10곳이 있다.

사회관광자원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자원을 관광 대상화한 것으로, 유형사회자원과 무형사회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에는 도시, 도시공원, 교육·사회·문화시설 등이 있고, 후자에는 인정·풍속·민중설화·행사, 국민성·민족성, 의식주 생활, 예술·예능 등이 있다. 의정부시 향토축제는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의정부국제음악극 축제 등이 있다. 의정부의 대표적인 스포츠시설로는 의정부종합운동장, 사이클 벨로드롬경기장, 의정부실내체육관, 의정부시스포츠센터 등이 있다.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사회공용시설로는 예술의전당과 의정부정보도서관 등이 있다. 향토특산물·향토요리의 관광 상품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여행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하는데 이들 역할이 매우 크다. 의정부 지역에서 발달한 향토음식은 의정부부대찌개, 의정부떡갈비 등이 있다.

2) 관광 여건 분석

의정부권역에는 여러 산악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가능동에 위치한 이전 미군 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는 안보·역사적 보존가치가 우수하여 2016년 반환되면 국가차원의 사업화 추진으로 보존 및 관광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여 휴식·레저공간으로 수락산 등 관광자원에 대한 등산객과 시민들의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정부시 자연적 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 여건은 다음과 같다.

(1) 산악자원 현황 및 여건

의정부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악자원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시의 동쪽으로 부용산과 용암산, 남쪽으로 수락산, 서쪽으로 흥복산·사패산·도봉산, 북쪽으로 천보산이 위치해 의정부시 도심을 둘러싸고 있다. 트레킹 코스나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도봉산·수락산 등의 산악자원들이 대부분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정부 시민 또는 서울시·양주시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이 등산·산책 등의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천보산에서 바라본 의정부

(2) 공원시설 현황 및 여건

의정부시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근린공원을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내 자연공원은 도봉산, 사패산이 속한 북한산 국립공원 1개소이다.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택 및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서부 대생활권에 집중하여 위치하고 있다. 부용천과 중랑천의 공원화 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함께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변무대에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직동 근린공원은 야외 공연프로그램 또는 축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 대부분의 근린공원은 일반 녹지공간과 함께 축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동기구 등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정부의 생활권별 공원시설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분류한 현

〈표 45〉 자연공원 현황

구분	국립공원(북한산)	도립공원	시공원
개소	1	—	—
면적(천㎡)	9,230	—	—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2010

〈표 46〉 생활권별 공원 현황

구분	합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계	83	3,008,459	1	369,732	15	2,493,651	67	145,111
동부 대생활권	46	1,971,181	1	369,732	11	15,223,888	34	77,561
금오	21	1,784,520	1	369,732	5	1,385,468	15	29,320
송산	18	107,264	—	—	4	68,512	14	38,751
장암	7	79,397	—	—	2	69,907	5	9,490
서부 대생활권	37	1,037,313	—	—	4	969,763	33	67,550
가능	12	22,980	—	—	—	—	12	22,980
중양	20	1,001,208	—	—	4	969,763	16	31,445
호원	5	13,125	—	—	—	—	5	13,125

출처 : 의정부시, 『2020 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

황은 <표 46>과 같다. 또한 시설형 관광자원은 도심 속 자연 휴식 공간인 직동수련원, 직동근린공원 내 산책로, 조각공원, X게임장 등이 있다.

3) 관광사업체 및 관광객 현황

(1) 관광사업체 현황

의정부시 산업구조에 비해 관광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주 5일 근무제 이후 수도권 외의 여가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지 조성사업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여가·관광시설이 난립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아직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의정부시의 산업구조는 90% 이상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관광과 관련한 사업체 비율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 증가로 여행업은 늘어나

<표 47> 관광사업체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일반	국외	국내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2005		1	16	10	1	—	—	—
2006		1	18	12	1	—	—	—
2007		—	21	13	1	—	—	—
2008		—	22	12	1	—	—	—
2009		—	21	11	1	—	—	—
2010		—	22	11	1	—	—	—
연도	구분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시설업	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2005		—	—	—	—	—	3	19
2006		—	—	—	—	—	3	18
2007		—	—	—	—	—	—	17
2008		—	—	—	—	—	4	16
2009		—	—	—	—	—	6	15
2010		—	—	—	—	—	6	15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는 추세이나, 관광호텔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숙박시설은 모텔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여행업 등록을 보면, 국내 대상이 11개소, 국외 대상이 22개소로 국외가 2배 이상 많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관광유흥음식점과 관광식당업이 소폭 성장하였다.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소비도시로서 인구가 많은 편이나 서울의 베드타운(bed town)화 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숙박업소와 요식업소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많아졌다. 의정부 시내에 운영 중인 일반 숙박업소(모텔)는 약 200여 개에 이르며, 이 중 85개소가 행복로와 중랑천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2) 관광지 방문객 수

의정부 관광지 방문객 수는 원도봉국립관리공원을 집계지로 하여 보면, 2006년 30만 4,275명에서 2007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2008년에는 둘레길 코스 개발과 등산, 산책 등 여가활동 문화의 확산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정도로 급증하였다. 그 후 다시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8〉 원도봉산국립공원 연간 방문객 수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관광객수	304,275	650,863	3,763,491	768,933	739,934

출처 : 의정부시,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① 집계지는 원도봉국립관리공원 기준으로 2007년부터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② 2006년 관광객수에는 외국인 116명이 포함되었다.

4) 관광개발계획과 발전방향

(1) 관광개발계획

관광개발(tourism development)은 관광사업에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활동이다. 관광개발은 관광자원이 갖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거나 향상시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체험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관광 대상이 되는 여러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진흥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용을 증대시켜 관광소비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통·숙박·음식 등 관광시설의 자본투자와 고용·소득·생활기반 정비의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생활과 산업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관광개발계획의 사업주체는 일반적으로 기획·개발·경영 모두에 참여하며, 개발추진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관광개발계획은 계획의 정밀도, 공간규모, 시간규모에 따라서 몇 개의 단계로 나뉘어진다. 의정부시의 관광개발계획은 기존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역사적인 유물·유적 등은 보전하고, 부족한 시설은 정비·확충하며,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루트는 크게 주위의 산들을 이용한 등산코스과 그리고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코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이미 수도권의 주말 관광지로서 주말에는 도봉산을 오르려는 등산객들이 망월사역, 회룡역 등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수락산지역도 수도권 및 의정부시민의 주말 휴양지로 개발하고 연계된 문화유적지를 답사할 수 있는 문화탐방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시는 풍부한 자연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보고, 쉬고, 함께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관광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한편 의정부시 관광자원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환경보전법」 등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관광의 파급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지속가능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축제나 이벤트의 개발을 통한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도봉산 포대능선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환경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정부시가 추진 예정인 사업은 중량천 환경정비 사업, 부용천 공원화 사업 등이 있다. 또한 금오동 어린이공원 외 5개소에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인공폭포와 산책로를 갖춘 직동수련원 테마공원 조성계획과 종합스포츠센터가 들어서게 될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도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2) 발전방향

관광은 21세기 떠오르는 산업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관광홍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정부시 관광자원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의 3요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단순한 유흥목적의 관광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지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의정부시의 관광여건을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자원의 역사적 의미, 즉 관광자원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 관광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중심으로 한 1차 시설 개발과 함께 휴식·휴양·편의를 위한 시설개발로 자원의 매력을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

셋째, 경원선 출발역 유치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넷째, 독특하고 정감있는 의정부시 향토 상품이 정직하고 정확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효율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미군 부대의 이전과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해서 개발 가능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여섯째, 도봉산과 수락산 같은 자원들을 연계한 캠핑장 개발과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주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의 체재시간이나 체재일수를 높여야 할 것이다.

김선봉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1. 의정부경전철

경전철(輕電鐵)은 기존의 지하철도인 중전철(重電鐵)과 반대되는 가벼운 전기철도라는 뜻으로 지하철도보다는 적고 대중버스보다는 많은 중간 정도의 수송능력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이다. 수송능력은 시간당 4천~4만 명으로 지하철도와 비슷하며 버스보다 월등히 높다. 기존 전기철도를 건설하는 데는 km당 1,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들지만, 경전철은 건설비용이 km당 400억 원 정도로 크게 줄 뿐만 아니라 저렴한 유지운영비와 저공해 환경친화성 등을 더해 각광받는 신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40만~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중·소형 도시에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가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의정부는 시내 교통량 집중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교통문제와 배기가스, 소음 등의 환경문제 해소를 위하여 경전철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다. 타 도시보다 앞서 계획을 구상하고 착수하였으나, 정부 시책 및 각종 관련 절차 이행 차질로 부산-김해 경전철에 이어 2012년 7월 1일 의정부경전철을 개통하였다. 시내 발곡역과 탑석역을 잇는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 노선으로 신·구 도시를 연결하고, 노선연장이 11km에 달하며, 무공해 교통시설로 무인 운행되고 있다. 2012년 5월 현재 상주인구 43만 명, 자동차 보유대수 13만 대, 1일 시계(市界) 통과 차량 45만 대에 이르는 의정부시의 인



의정부경전철

구규모와 동·서간 불균형을 이루는 도로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의정부경전철은 장래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수익 분석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선정된 신교통시설로 정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성, 경제성 등의 적격성 검증을 수행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으로 2006년 3월 31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가기간망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정시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쾌적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이 이루어져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게 되므로 큰 경제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의정부경전철은 1999년 12월 기획예산처의 민간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되고, 2000년 11월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이 확정되었으며, 2001년 9월 기획예산처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확정 승인을 얻었다. 이후 2001년 11월 시설사업 기본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계획을 고시하여, 2004년 8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GS컨소시엄이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5년 10월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협상단에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등 총 64회의 실무협상이 실시되었다. 협상은 교통수요 분야 8회와 기술 분야 27회, 실시협약 및 사업비 27회, 본 협상이 2회 진행되었다.

또한 2005년 12월 사업비 확정 등 실무협상 자문결과를 반영하고, 2006년 3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의를 통하여 검증받아, 2006년 4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다. 그 이후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통하여 2007년 7월 실시계획 승인과 8월에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0년 6월 의정부경전철(주)과 인천메트로 간 관리운영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2010년 9월 경전철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안검토 보고회 개최와 2011년 12월 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보고회 개최가 이루어졌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10월 21일까지 10개월에 걸쳐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개통 시 약 5만 7,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협약수요 대비 72% 수준이며, 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 시에 약 6만 5,000명으로 단독요금제에 대비하여 운영기간 동안 연평균 약 1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1>은 의정부경전철 이용수요 재검증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 경전철요금을 1,300원으로 가정하였으며, 버스 및 전철요금은 1,100원으로 가정한 것이다.

<표 1> 의정부경전철 이용수요 재검증

(단위 : 명/일 · %)

구분 \ 연도	2012	2016	2021	2026	2031	2036
협약수요	79,049	118,998	126,116	131,965	147,985	151,390
단독요금제 수요	57,154	72,205	72,857	74,781	74,644	75,352
환승할인제 수요	65,713	78,547	79,325	81,369	82,091	82,639
환승할인 시 증가율	15	9	9	9	10	10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 2011.

이후 2012년 3월 경전철 기술 시운전 및 예비준공 검사가 완료되었으며 2012년 6월 까지 영업시운전 완료 후 7월 1일 개통되었다. 구체적인 의정부경전철 추진경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의정부경전철 추진경과

일시	내용
1995. 12. 31	의정부경전철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의정부시)
1999. 12. 31	민간유치대상사업 재지정 고시 (기획예산처)
2000. 11. 24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건설교통부)
2001. 9. 25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심의확정 및 승인 (기획예산처)
2001. 11. 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의정부시)
2004. 8. 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의정부시), GS건설 컨소시엄
2005. 10. 6	의정부경전철(주) 설립
2006. 4. 14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착수 (의정부시)
2007. 7. 26	의정부경전철 건설사업 기공식
2007. 7. 30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07. 8. 28	건설공사 착수
2007. 10. 18	도시철도사업 면허 취득

일시	내용
2008. 7. 1	회룡역 전면개량 계획 확정 (국토해양부)
2010. 10. 8 ~ 2011. 6. 14	차량 입고
2010. 11. 6	차량공개 및 홍보관 개관식
2011. 2. 23 ~ 2011. 10. 14	예비 주행 시험
2011. 3. 29 ~ 2012. 2. 14	본선 시운전
2012. 2. 15 ~ 2012. 4. 10	종합 인터페이스 시험
2012. 4. 11 ~ 2012. 6. 28	영업 시운전
2012. 6. 29	개통 및 준공식
2012. 6. 29 ~ 2012. 6. 30	무임 시승식
2012. 7. 1	공식 영업 개시

의정부경전철의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노선은 의정부경전철 노선도에서 알 수 있듯이 발곡역이 위치한 신곡동으로부터 차량기지가 위치한 고산동에 이르고 연장은 11.076km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둘째, 총사업비는 불변가로 5,470억 원이었으며, 민간재원이 2,974억 원, 재정지원이 2,496억 원에 달하였다. 재정내역 2,496억 원에는 국비 728억 원, 지방비 944억 원, 분담금 824억 원이 포함되었다. 셋째, 사업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며, 소유권은 의정부시이고 관리운영권은 의정부경전철(주)이 갖고 있다. 넷째, 사업시행자는 의정부경전철(주)이고, 차량시스템은 고무차륜 AGT 독일 지멘스 차량 VAL208로 2량 1편성이다. 다섯째,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이고, 노선의 색은 귤색으로 되어 있다.

의정부경전철 전체 거리 및 소요 시간에는 발곡에서 탑석까지 전체 운행거리가 10.6 km, 총 운행시간이 19분 54초로 나타나 있다. 정차시간은 환승역인 회룡역이 30초, 발곡역이 20초, 기타 역은 16초이며, 회룡역에서 시청역까지 4분 10초, 경기도청 북부청사역까지는 11분 3초가 소요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시간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30분까지이다. 차량 운행간격은 시민 여러분의 이용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3분 30초, 낮에는 6분 10초~8분 30초, 새벽이나 야간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노선도



의정부경전철 전체 거리 및 소요 시간

〈표 3〉은 의정부경전철 발곡부터 탐석까지의 전체 역명을 한글·영문·한문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으며, 〈표 4〉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전 12시 30분까지의 운행시간과 운행시격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의정부경전철 역명

한글	영문	한문	한글	영문	한문
발곡	Balgok	鉢谷	새말	Sae-mal	—
회룡	Hoeryong	回龍	경기도청 북부청사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Northern	京畿道廳 北部廳舍
범골	Beomgol	—	효자	Hyoja	孝子
의정부	Uijeongbu	議政府	곤제	Gonjae	昆弟
시청	City Hall	市廳	어룡	Eoryong	魚龍
흥선	Heungseon	興宣	송산	Songsan	松山
중앙	Jung-ang	中央	탑석	Tapseok	塔石
동오	Dong-o	東梧			

출처 :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민간시설투자사업』, 2012.

〈표 4〉 의정부경전철 운행시간 및 운행시각

운행시간	운행시각	운행시간	운행시각
05:00~06:00	10분	19:00~21:00	3분 30초
06:00~07:00	8분 30초	21:00~23:00	8분 30초
07:00~09:00	3분 30초	23:00~00:30	10분
09:00~19:00	6분 10초		

출처 :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민간시설투자사업』, 2012.

의정부경전철에서 사용 가능한 승차권은 1회권과 교통카드가 있다.¹ 토큰형의 1회권은 경전철 역사 내 발매기에서 구입 가능한 경전철 전용권으로 의정부경전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카드는 일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선·후불식 교통카드와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유공자 교통카드가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일반 요금은 카드와 현금 동일하게 1,300원인 데 반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통카드 사용 시 각각 650원과 1,040원,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 사용 시 무료로 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금할인으로 2012년 7월 의정부경전철 개통 당시 예상손실 보전

¹ 2013년 2월 1일부터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승차권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체승차권은 의정부경전철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승차일 1주일 전에 의정부경전철(주)에 신청해야 사용 가능하다.



의정부경전철 역사 내 승차권 발매 및 교통카드 충전기



의정부경전철의 토큰형 1회권 승차권

부담 규모는 연평균 약 19억 원으로 예상되었다. 의정부경전철 이용요금 및 요금할인, 할인대상별 예상보전액은 <표 5>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한편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유아는 무임이나, 장애인과 경로자는 일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² 토큰형 1회권의 재사용으로 현금 승차 시의 일반 요금은 추가부담이나 할증 없이 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철도사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무임 승차 시 요금 30배의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 시내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문제와 교통체증, 배기가스, 소음 등의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첫째, 당초 예상과 달리 하루 평균 이용객이 목표치인 7만 9,000명의 17%인 1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전철 운영사인 의정부경전철(주)은 개통 이후 6개월 동안 120억여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이다. 2013년 4월 5일 경기도에서 통합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기로 발표해 다행스럽게도 경영 상태는 향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정부경전철은 폭설과 시

2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은 장애인 교통카드 이용 시 운임이 무료로 할인 적용되고 있다.

〈표 5〉 의정부경전철 이용요금 및 요금할인

(2012년 7월 기준, 단위 : % · 원 · 억원)

할인 대상		할인율	이용요금	예상보전액	비고
일 반	만 19세 이상	—	1,300	—	카드/1회권 사용
어린이	만 6세 이상 ~ 13세 미만	50	650	3.3	어린이 교통카드 사용 시
청소년	만 13세 이상 ~ 19세 미만	20	1,040	15.0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 시
유공자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100	무료	0.7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사용 시
합계				19.0	

출처 :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민간시설투자사업』, 2012.

시스템 이상 등에 따른 운행 중단까지 포함하여 개통 이후 2013년 2월 3일까지 13번이나 멈춰 섰는데,³ 이와 같은 잦은 운행중단은 시민들이 경전철이 아닌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셋째, 개통 전부터 지상 고가방식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소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시민들은 3~4층 높이의 경전철 교각구조물이 도시 중심부의 시야를 가리고 건너편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며, 경전철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 등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민의 사랑을 받는 녹색성장의 미래형 최첨단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대중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며, 홍보 및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것이다. 의정부시 버스노선은 총 51개 노선(일반버스 37개, 마을버스 14개) 가운데 20개 노선(일반 8개, 마을 12개)의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는 중이다.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경전철 관련 노선 개편은 운송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버스와 경전철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의 단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 경전철 접근로(동오역) 개설, ② 환승주차장 설치(회룡·홍선·효자·새말역 등), ③ 역사별 자전거 보관대 확대 설치, ④ 도로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⑤ 행사 시 차 없는 거리 운영 및 보행 접근성 제고, ⑥ 이용수요 유발을 위한 각종 관광프로그램 개발, ⑦ 부속사업 활성화, 역내 문화이벤트

3 『의정부신문』 2013년 2월 4일.

실시, ⑧ 실생활 관련 행사 유치, ⑨ 복지카드로 운임계산 등 승차권의 다변화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 경전철과 버스연계성 강화, ② 주차요금 현실화, ③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경전철 수혜지역 확대(기능동·녹양동·신곡동 등), ④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2. 용현산업단지

용현산업단지는 의정부 시내에 위치한 산업지역을 개발하여 도시 내 산재한 공장의 이전 촉진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과 생산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조성 기준연도는 1994년이며, 조성기간은 1995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4년 8개월이다. 사업비 총 765억 3,300만 원으로 용현동 527-1번지 일원에 면적 34만 6,546.5㎡로 조성되었다. 조성된 산업단지는 분양되어 2013년 5월 현재 섬유,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자 등의 약 132개 업체(임대업체 포함)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다. 이 중에서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 수는 90개 업체이다.

〈표 6〉 용현산업단지의 분양현황

(2004년 기준, 단위 : ㎡ · 필지)

구분	분양대상	분양현황		미분양필지 용도
		분양	미분양	
계	256,584.8(76)	251,395.6(74)	5,189.2(2)	
산업시설용지	210,423.2(67)	207,483.1(66)	2,940.1(1)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용지	46,161.6(9)	43,912.5(8)	2,249.1(1)	후생복지시설

출처 :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공급안내서』, 2004.

개발주체는 의정부시장이며, 개발방법은 공영개발이고, 개발근거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였다. 개발비용 조달은 도비·시비·지역개발기금·분양선수금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유치 기업의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생산액 및 부가가치가 높고 지역주민의 고용효과가 큰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였

다. 의정부시 및 수도권 내에 산재한 용도지역 위반공장을 수용하는 한편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는 공장으로 제한하는 등 입주자격 조건을 유지하였다. 유치 업종은 조립금속·기계장비·섬유·의복 등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허용되는 업종으로 제한하였다.

용현산업단지의 추진은 1976년 3월 27일 준공업지역 결정 이후 2012년 3월 29일 용현지방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분양 계획(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발사업 준공인가와 분양공고 등이 이루어졌다. 상세한 추진과정은 <표 7>과 같다. 이 사업에서 분양가 납부방법은 협약 신청 시 5%, 협약 체결 시 10%, 6개월 이내 20%, 12개월 이내 20%, 18개월 이내 50%로 되어 있다.

<표 7> 용현산업단지의 추진경과

일시	내용
1976. 3. 27	준공업지역 결정(건설부 고시 제37호)
1995. 11. 28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1996. 10. 16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1996-768호)
1997. 3. 18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의정부시 공고 제51호)
1997. 8. 26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의정부시 공고 제199호-제2차)
1998. 3. 30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의정부시 공고 제47호-제3차)
1998. 9. 10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1998-378호)
2000. 7. 27	용현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2001. 4. 23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통합 고시
2011. 4. 14	경기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경기도고시 제2011-96호) → 허용기준 :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2012. 3. 29	용현지방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분양 계획(안) 보고

2012년 12월 기준 입주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가동업체 수가 109개이고 고용인원이 남자 1,195명, 여자 802명으로 총 1,997명이었는데, 업체의 입주와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5월 기준으로 가동업체 132개, 고용인원 3,400명이 되었다. 생산액은 1,814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수출액은 472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배후지역의 의정부시 제조업체 수는 147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1,59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용현산업단지 기업체 중 기업인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90개 업체 중 정회원인 주

〈표 8〉 용현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2012년 12월 기준, 단위 : 개·명)

업종	가동업체수	근로자수	업종	가동업체수	근로자수
음식료	2	40	기계	7	32
섬유·의복	36	732	전기·전자	27	525
목재·종이	3	42	운송장비	3	142
석유화학	10	166	기타	4	164
비금속	6	40	비제조	4	5
철강	7	109	계	109	1,997

출처 : 의정부시, 『의정부 용현일반산업단지』, 2012.

식회사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업체 현황을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41.0%인 25개 업체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34.4%인 21개 업체가 제조업과 도소매 및 무역, 건설업 등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9.8%인 6개 업체는 도소매 및 무역업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업종에는 14.8%인 9개 업체가 소속되어 있다. 의정부시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중기계화는 유통산업 구조의 고도화 프로그램 실천이며, 장기계획은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집중 육성 및 유통기능 강화 등으로 도시 중심기능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자생력 제고와 문화 공간 확충 방안에 의하여 용현산업단지 내 향후 성장산업 및 기업군으로서 문화와 유통, 관광산업과 이와 관련된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용현산업단지 주요 업체 현황

(2013년 기준)

업체명	대표이사	업종	주력사업
(주)아카데미과학	구제현	제조업	플라스틱모형연구, 과학교재, 무선모형자동차
(주)메디씨이	장종욱	제조업	척추임플란트 외
(주)아성	김정인	제조업	수첩, 다이어리, 캘린더, 파일, 판촉물 등
(주)비이오클	문용균	제조업	차아염소산수, 미산성차아염소산수
(주)휴템	신홍수	제조업	웨이퍼본너, 나노임프린트, 주사기 충전설비
(주)옴니카코리아	다카오 하사다카	제조업	IPL, RF, ND-YAG 등 미용기기
(주)디지텍	최갑기	제조업	전자제어장치, 무대조명, 기계장치
(주)진양코퍼레이션	한성수	제조업	자동차 전장부품
(주)케이티정밀	김민정	제조업	소방기기 계량기

업체명	대표이사	업종	주력사업
(주)에스티와이드	이강우	제조업	LED 조명기기
(주)동화제경	구보용	제조업	유리 가공, 유리섬유
(주)글라스 한진	정해성	제조업	유리
(주)렉스컴	김사순	제조업	옥내 외 강판 광고 제작
(주)영성에이스	윤의명	제조업	양말, 타이즈
명진실업(주)	이용길	제조업	스판텍스 카바링사
(주)해동무역	김찬호	제조업	니트원단
(주)대경바스컴	한대현	제조업	산업용음향, 영상기기 설치, 무역, 제조, 판매
(주)텍슨	김은진	제조업	열교환기, 기계부품 등
(주)엔담	김응규	제조업	지문인식 도어록
(주)드리움	정미자	제조업	PVC창문, 문틀
(주)피에스앤아이	고진석	제조업	전원장치, 전동장치, 솔리용용장치
다원전자(주)	이명우	제조업	전자부품
진도산업(주)	박 철	제조업 외	음향케이스, 반도체방열기
(주)수락	이길웅	제조업	라디오 및 전축앰프
(주)대영리드	김기출	제조업	FLEXIBLE LEAD WIRE
(주)정현메디텍	장광호	도소매	쇼핑몰, 율트라기어, 안마의자
(주)포스트피아	김성규	기타인쇄관련사업	e-그린우편
(주)외삼촌네	김용구	식자재	식자재 도매
참뚝파이(주)	김선기	서비스	물류유통, 육가공
(주)사조통상	권기정	도매업	무역업
(주)신우M&B	조규철	도소매업	도서유통
(주)라인텍스타일	박창배	섬유, 무역, 제조, 도매	침구
(주)지티빈스	노시정	도소매업, 무역업	커피 생두 및 기구 판매
(주)뉴빛	신기섭	제조업, 도매업	핸드폰 액세서리, 케이스
우신복충유리(주)	김상만	제조업, 도매업	판유리, 거울도매 및 가공
(주)유레카	김영철	제조업, 도매업	핸드백, 지갑 외
(주)오토컴	장준규	제조업, 도소매업	자동차용품 액세서리, 필름(선팅)
(주)지테크인터내셔널	한성우	제조업, 도소매업	전자저울, 선풍기, 신장계
(주)케이텔	김용기	제조업, 건설업	소방제품, 전기통신제품
금성방재공업(주)	김태호	제조업, 건설업	전자경보기, 감지기 외
대성정밀(주)	이준연	제조업, 도매업	복사기, 프린터, 음향기기 부품
유앤아이(주)	구차교	제조업, 도소매업	의료용 기구
(주)성진장갑	김동식	제조업, 도매업	장갑
(주)더킴통상	이중호	제조업, 도매업	자동차 공조부품 일부
(주)라이프양행	우 현	제조업, 도소매업	플라스틱 청소용품
(주)유니온메디칼	김준영	제조업, 도매업	전기수술기, 레이저수술기

업체명	대표이사	업종	주력사업
(주)토펙스	김재문	제조업, 도매업	현미경, 화상기, 의료기기
신장공업(주)	김영신	제조업, 서비스업	건축자재류(장식품 등)
(주)삼우이엘씨산업	안국찬	제조업, 도소매업	생활용품, 금형 외
디알에스테크(주)	이석형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철도부품, 전기전자부품
(주)웅기	김응규	제조업, 도매업	PVC창호 및 틀
대도철강(주)	한여수	제조업, 도매업	철강, 기계부품
(주)성우에스엔씨	두미심	네트워크, 통신	CCTV, 영상·음향기기 설치
(주)시크리아	장선녀	제조업	가방, 지갑, 핸드백
대호공업(주)	유진산	제조업	철재가구, 알루미늄창틀
테진테크(주)	이정자	제조업	무정전 전원장치 외
(주)현우교역	김정호	무역업	PVC가드레일, 방음벽
(주)동신수지	이영배	제조업	모자부품, 모자창식
(주)월드비씨	송안호	제조업	평각도체, 압연기
(주)동아실업 월드엔지니어링	오병남	제조업	전기단자함
네오머티리얼스(주)	정이숙	제조업	치과용 재료

출처 :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http://www.yia.or.kr>).

입지여건 중에서 먼저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국도는 3번(남해-의정부-초산), 43번(연기-의정부-고성)이 해당된다. 셋째, 지방도는 314번(축석-강릉)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다. 철도는 경원선 의정부역, 항공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항만으로는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입지여건 중에서 공장입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용수와 오수 및 폐수, 산업폐기물, 전력, 통신, 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용수의 취수원으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수원으로 송산배수지에서 공업용수·생활용수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업용수는 2,929톤/일에 달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는 1,524톤/일에 해당하고 있다. 오수 및 폐수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들 수 있는데, 공장폐수는 각 공장별로 1차 처리 후 장암동 의정부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생활하수는 의정부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어 처리된다. 산업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폐기물은 자금동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다. 전력은 인입경로가 의정부전력소로부터 단



용현산업단지 위치도

지변전소와 입주업체로 이어지고 있고, 공급능력은 전압 155kv, 용량 23,159kw에 달한다. 통신은 의정부전화국에서 2,211회선이 공급되고 있다. 용현산업단지와 관련된 정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산학연 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e-cluster.net)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입지여건 중에서 지역생활과 관련된 주요 지원기관, 도시생활환경, 지역경제 등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지원기관에는 산업활동 지원기관으로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감정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산업활동 교육기관으로 경기컴퓨터직업전문학교, 한국자동차정비직업전문학교 등이 있다. 도시생활환경으로 의료와 관련하여 2012년 기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19개소, 의원 224개소, 치과 132개소, 정신·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의원 83개소, 조산소 2개소,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등이 있다. 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8만 5,756세대 보급으로 주택보급률이 97.9%에 달하며, 주변 시세를 보면 아파트 25평의 경우 평균 전세

8,000만 원, 매매 1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내체육관 2개소, 종합운동장 1개소, 사이클경기장 1개소 등이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 최근 1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 중이며, 교통이 원활하여 제품유통 및 원부자재 수급은 수월한 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입주조건과 관련해 입주업종과 입주자격, 입주제한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입주업종은 전기, 전자, 조립, 금속, 섬유, 의류, 기계, 장비 등이며, 입주자격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입주제한으로는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 임가공 도정업과 연탄·응집무연탄 제조업과 같은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 공해다발업종 등이 포함되고 있다.

입주절차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심의 후 계약체결, 입주로 이어진다. 입주가능일은 분양완료(수시) 시이다. 입주혜택으로는 세제와 금융의 혜택이 있다. 세제로는 취득세·등록세가 전액면제이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자동화, 정보화, 기



용현산업단지



의정부시의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잇기'에 참여한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2010년)

술개발, 사업 전환, 대기업사업 중소기업 이양, 일반 창업, 소기업 육성, 유망 신산업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가동 중인 공장등록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 유망 신산업을 영위하는 자, 경기도지사가 정한 '경기명주' 제조업자 등이다. 지원 조건은 사업별 2~10억 원, 금리 연 4.7~6%이며,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입주신청서류로는 입주신청 시 공급신청서(소정양식), 공장등록증명원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 1부,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공장)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확인원 1부, 신청금 납입영수증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주계약 체결 시에는 유의서 및 공람확인서(소정양식), 계약보증금대체신청서, 인감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용현산업단지에는 업체 간의 정보교류 및 민원처리 향상을 위하여 2008년 12월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이들의 주요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사 간 친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산업단지 내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국내의 경제 상황에 공동대응하고

단위경제를 육성하며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넷째, 기업 간 기술·경영정보의 교환 및 합리화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섯째,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의 타개와 발전적 기업풍토 조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용현산업단지는 전자·기계·의료·섬유 등 132개 업체(2013년 5월 기준, 임대업체 포함)가 분포되어 있으며, 의정부시의 유일한 산업단지로서 도시 동쪽 중앙에 위치하여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한 사통팔달된 교통과 풍부한 인력 수급 등 인프라를 두루 갖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첨단산업단지라 할 수 있다. 용현산업단지는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함께하는 산업단지로 거듭나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김종권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3. 제일시장

1) 경기 북부 상업의 중심지 제일시장

의정부제일시장(이하 제일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의정부에 정착한 실향·이주민들에 의하여 의정부1동 160번지에 형성된 의정부 5일장을 모태로 한다. 당시의 의정부 5일장은 이 지역에 전후 미군 부대 주둔으로 도로망이 정비되고, 미군 군용 물자 및 경기 북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집결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송병익 외 101명의 상인들이 ‘시장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1954년 10월 11일 의정부 ‘제1공설시장 조합’을 창설하여 5일장을 상설화하였다. 이처럼 제일시장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종합도소매시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표상이자 상인을 비롯한 의정부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해 온 삶의 터전이다.

1954년 이후 의정부 제1공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제일시장의 상인들은 내무부의 공설시장 민영화 방침에 의거하여 1976년 3월 29일 정관을 제정하고, 같은 해 4월 12일에 사단법인 의정부제일시장변영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320여 명의 변영회원들은 점포의 증가로 인한 시장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고자 같은 해 1만



제일시장 구 건물 전경(1970년대)

5,110.70m²(4,579평)의 대지를 의정부시로부터 4년 5회 분납 조건으로 7억 5,421만 5,000원에 구입하여 새로운 시장을 건축하였다. 제일시장 공사는 1977년 9월 1일에 착공되어 1978년 7월 1일에 완료되었으며, 이로써 경기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화된 도소매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오늘날 제일시장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증축된 가·나·다·라의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표’자 구조로 되어 있다. 연면적은 1만 7,555m²로 임대 1만 4,654m², 분양 2,901m², 주차장 2,622m²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는 의정부 일대 교통의 중심지로서 동편은 태평로, 서편은 중앙로, 남편은 퇴계로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로데오거리 및 녹색거리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는 각종 노점상이 산재하고 있다.

〈표 1〉 제일시장 면적 및 용도지역·지구

(단위 : m²)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지역	지구
15,110.70	17,555.71	10,491.74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표 2〉 제일시장 층별 면적 및 용도

(단위 : 평)

구분	계	지하	1층	2층	3층	4층
면적	5310.60	725.51	3,173.75	1,009.64	355.52	46.18
용도	—	판매시설 기계실	판매시설	판매시설 창고, 전기실 화장실	판매시설 창고 변전실	저수조시설

〈표 3〉 제일시장 업종별 점포 수

(2008년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 업종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점포수	73	21	25	51	174	17	123	152
비율	11.5	3.3	3.9	8.0	27.3	2.6	19.3	23.9

2008년도 기준 제일시장의 동별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동에는 여성복(31%), 한복침구(13%), 아동복(11%), 남성복(6%) 등 75개의 의류관련 점포가 분포되어 있으며, 나동에는 한복·침구(14%), 의류수선(14%), 여성복(12%), 커튼(12%), 정육(13%), 건어물(7%) 등 다양한 업종을 가진 65개의 점포가 분포되어 있

다. 다동에는 식당(17%), 떡집(13%), 기름(13%), 정육(13%), 건어물(7%) 등 65개의 1차 가공식품군 점포가 분포되어 있으며, 라동에는 여성복(40%), 한복·침구(18%), 남성복(13%), 내의류(9%) 등 의류관련군의 73개 점포가 분포되어 있다. 십자로에 자리한 좌판에는 의류수선, 반찬류, 야채, 공산품, 분식점과 가정용품점 등이 분포하여 점포와 보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십자로 동편은 생선, 야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특화지구이며, 지하에는 48개의 식당이 밀집되어 먹거리 타운을 이루고 있다.

가·나·다동의 2층은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라동의 2층은 번영회 사무실, 보리밥뷔페, 신우신허, 미장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시장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번영회는 전체 회원 350여 명으로,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조직하고 있다. 번영회에서는 월 1회 기준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 사항 토의 및 의결, 긴급 제안, 기타 제일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안건 등을 토의 및 조율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일시장은 수도권 국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한때 경기 북부 전 지역권은 물론이며, 서울과 강원도 철원에서까지 손님이 찾아올 정도로 호황을 이루어 경기 북부 제일의 시장으로 알려졌다.

제일시장 일대에는 제일시장과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쇠퇴한 제일시장 건너편의 광흥시장과 최근 도로를 정비하여 새로 개편된 중앙로 상가 등 3개의 상업지역이 자리하고 있어, 의정부의 중앙 상권을 이루고 있다. 특히 주변에 2012년 4월 개점한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과 중앙로거리, 의정부로테오거리 등의 변화가 인접해 있어 사람들이 오가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터전이자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은 시장이 존재하고 지탱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다시 말해 제일시장은 ‘시장’과 ‘문화’의 만남을 통해 ‘문전성시’를



제일시장 내 신발과 모자 상점

이루는 ‘마을의 광장’으로서 상인에게 더욱 활력 있는 일터를, 주민에게 즐겁고 풍요로운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거대한 ‘시장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제일시장은 작은 점포들이 마치 개미 군단처럼 움직여 있으며,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골목형 시장에선 청과와 생선, 고기, 2차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가형 시장에선 여성복과 주단, 잡화, 귀금속, 가구 등의 공산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¹ 이처럼 의정부 제일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어느 생활형 근린 시장과 비슷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시장 주변에 많이 분포해 있는 무숙인집의 수요 때문인지 질 좋은 제수용품이 판매되는 시장으로 알려져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특화된 상품이 있지는 않다. 제일시장은 특화된 상품이 없음에도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찾는 서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일시장에는 ‘단골’ 문화가 깊게 형성되어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경험적이고 심리적인 소비 양식에 익숙한 지역 주민들과 상인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2) 새로운 시장 문화를 디자인하는 제일시장

제일시장은 한때 의정부 유일의 재래시장에다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고 있다는 강점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반경 3km 안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고객 이탈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문을 닫는 점포들도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빈점포 비율도 2005년에는 20%에 육박할 정도였다. 위기감을 느낀 번영회 집행부에서는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글로벌시대의 요구에 재래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밤을 낮 삼아 재래시장으로 고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메리트를 찾기 위해 부심하였다.

그 결과 제일시장에서는 고객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노력, 즉 “시장과 마을의

1 김은경, 『도시문화프로젝트』, 『도시문제학술지』 47-522, 2012, 60~63쪽.

관계를 좀 더 문화적으로 디자인해보자.”는 목표하에 지속적인 시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일시장 변영회에서는 그 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일시장은 문화인프라나 소프트웨어가 주민생활권 안으로 체감이 잘되지 않는 곳입니다. 서민 생활공간의 중심,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이 마을의 문화적 허브로서 기능했으면 하는 목표에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신의 일상 영역인 ‘제3의 공간’으로 재설정할 수 있을까가 주된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2000년 이래 제일시장은 자체 예산 및 국비·도비·시비지원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시설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 마인드 육성을 위한 상인 교육, 상품권 발행 및 유통, 각종 세일 및 이벤트 행사 개최, 고객휴게실 확보, 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의 발길을 시장으로 돌리게 하였다.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김장 행사 등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²

〈표 4〉 제일시장 환경 개선 추진 사업 내용(2005년)

주요사항	내용
여닫이 강화 유리문 설치	3개 동(가, 나, 라 42곳)에 대한 통로 유리문 설치로 겨울철 난방효과 및 황사 등에 대처, 각 점포 연료 절감에 최대효과 기대
라동 북측 계단 출입구 보수	어둡고 침침하던 북측 계단입구 주변 공사로 쾌적한 환경조성
지하음식백화점 개선	• 47개 좌판을 스테인레스 철재로 제작 및 부대시설 설치로 쾌적한 공간 마련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의 증가로 매출증대에도 기여 • 상하수로 정비, 환기시설정비, 바닥정비 등 • 가스시설 완전 설치로 추후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시설교체 없이 연결하여 사용 가능
라동 북측 계단 출입구 보수	어둡고 침침하던 북측 계단 입구 주변 공사로 쾌적한 환경 조성

구체적인 환경 개선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일시장 변영회에서는 2005년부터 대대적인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비 및 도비·시비 등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가, 나, 라동 출입구 42개소에 여닫이 강화유리문을 설치하여 겨울철 난방 효과를 높이고 연료를 절감한 것은 물론이며 봄철 황사 등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라동

2 김진권,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제일시장변영회, 2008.

북측 계단 출입구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으며, 냄새나고 어둡침침한 지하 음식백화점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환기시설, 상·하수도, 스텐인레스 좌판, 바닥 타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에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어둡고 노후화된 분위기의 제일시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제일시장은 시설 공사뿐만 아니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시장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날 정도로 비좁았던 통로를 정리하기 위해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노점상들을 한데 모아 상점 간 3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통로에 노란선을 그어 상점의 일정한 상품 진열을 유도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고객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좌판에는 이른바 ‘특화지구’를 지정해 생선, 야채 등 대형할인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1차 상품들을 모아 고객들이 한곳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 아래 착실히 개선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매출은 본격적인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실시되기 전인 2005년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30~40% 정도 상승하였고 비어있던 점포도 거의 다 들어차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일시장은 2005년 중소기업청장 우수시장 표창을 시작으로, 200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국무총리상 수상 및 2006·2007년 연속 시장경영센터 시범시장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의 전통시장 관련 종사자들이 잇달아 제일시장의 성공 배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시찰하는 등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시장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2007년에는 무질서한 외곽점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였다. 점포별 자기부담금에 대한 일부 상인의 반발도 있었지만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증대되며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업소별 간판이 정비되었으며, 반아케이트 시설, 호박등 및 랙산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길게 늘어진 백열전구 대신에 일렬로 잘 정돈된 형광등이 시장 내부를 환히 비추게 되었으며, 손님들은 바둑판처럼 잘 정돈된 상점들 사이로 카트를 활용해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그에 따른 고부가가치로 인해 점포별 매매가가 상승하고 임대료도 올라 공사 당시 반대하던 상인들도 상당히 만족하

고 있다.

2008년에는 제일시장 나, 다동에 사업비 29억 6,300만 원(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자금을 투입하여 주차장 증축(5,180㎡), 북측 주차램프 1개소 설치 및 소방 및 전기 공사, 아케이트 구조물 변경 설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 주차면 274면이 472면으로 늘어나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 및 교통난이 완화되었다. 이는 제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수 증가로 이어져 매출 신장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표 5〉 제일시장 발전 사업 추진사항(2007년)

일시	주요 추진내용
2007. 5. 2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 및 주차램프 설치공사' 설계 착수
2007. 6. 19	기본 설계 완료에 따른 설명회 개최
2007. 8. 7	의정부시 설계자문 및 증소기업청 사전심의 신청
2007. 8. 23	설계용역 중지(설계보완을 위한 세밀실사)
2007. 9. 7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2007. 9. 13	자문결과 통보(건설과-10875호)
2007. 9. 12	시장경영지원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 개최
2007. 9. 28	심의결과 통보(상권자문-07-392호)



제일시장 입구와 내부

아울러 제일시장 외곽 노점 정비로 추가진입로가 확보되었으며, 지상과 주차장을 연계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고객이 구매 상품을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인들 역시 물건의 상·하치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신선하고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고객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동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유치하여 시장 상인의 편의는 물론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쇼핑과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 내 휴게실 및 쉼터를 설치하여 만남의 장소와 노약자 및 어린이 등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곳곳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 제일시장

제일시장은 해방 이후 의정부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지역의 허브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일시장 번영회에서는 매년 의료원과 연계된 봉사 단체의 의료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 상인들은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접 참여하여 봉사를 실천하기도 한다. 일례로 2006년도 수해 때는 제일시장 상인들이 200여 만 원의 수재의연금을 모아 KBS에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닥칠 경우 모금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제일시장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 행사를 개최하여 1,000포기 가량의 김치를 독거노인 400여 세대에게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따스한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일시장의 노력은 번영회 사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일시장 번영회에는 회장실이 없고 회장 명패도 없다. 이는 “회장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회장은 우리 회원 및 상인의 심부름꾼이다. 회장실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회장 명패도 필요하지 않다”는 전임 김진권 번영회장(2005~2011년 재임)의 소신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회장실은 접견실로 사용되고 있다. 번영회에서는 상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여 시장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포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고객과 상인 간에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찾아오는 고객도 발길을 돌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일시장에서는 고객 신뢰를 위한 방안으로 원산지 및 가격표 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국산·외국산의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깔끔하고 규격화된 표지판을 사용, 고객이 쉽게 식별하여 믿고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이미지 제고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는 상인과 고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거래 질서 확립의 기본이 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의정부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서자, 독자적 생존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자구책을 찾는 데에 시장의 생존과 존립의 성패가 달리게 되었다. 따라서 상인들은 각자 경영마인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2006년 10월의 동편 아케이트 준공과 28개 생선 및 야채 노점의 특화지구 설정 및 규격 좌판, 상·하수도, 원형간판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것, 그리고 대형냉장고 5대를 설치하여 신선한 생선 등을 공급토록 하고, 시장 내에 고객 쉼터 겸 장터마당을 조성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자구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일시장 내 상가 전경 및 고객 쉼터





제일시장 내 조형물

또한 제일시장 십자로 중앙에 설치된 장터마당은 각종 공연은 물론 이벤트 행사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분수대, 이벤트에 필요한 음향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마술, 통기타 공연 등 정기적인 이벤트 무대로 연극무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 내의 민간 공연 단체 및 동아리의 공연장으로 이용되어 지역사회 문화 예술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한편 제일시장에는 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제일시장의 전신인 제1공설시장이 말의 해인 1954년 10월에 설립된 것을 기념하여 2008년에 말을 기념 동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파발막과 역원이 설치되었던 의정부의 역사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말은 십이지 동물 가운데 튼튼한 육체와 활기의 화신으로 희망과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존재로서 제일시장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된 상인 교육 공간이 없었던 제일시장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 번영회 사무실 내에 교육관이 신설되어 상인 교육 및 각종 회의를 개최함은 물론 외부에서 제일시장 벤치마킹 방문 시 설명회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빔프로젝터, 앰프 등의 시청각 시설을 활용한 주부가요 교실, 컴퓨터 교실, 민요 교실, 어린이 합창

단 연습, 기체조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불우 이웃 돕기, 일일 바자회 등의 행사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기, 커피자판기 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교육관 설치와 연계하여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직원 휴게소 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종전의 연탄창고를 숙직실로, 폐지집합소를 직원 개인 사물함 공간 및 휴게실로 개조하였다.

아울러 상인 교육관에서는 상인 의식 개혁과 판매 기법 향상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경영자적 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전액 무료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상인대학은 의식 혁신, 고객 만족 서비스에 기본을 둔 기본 과정, 상품 구매, 상품 디스플레이 등 고객을 창출하는 판매 기법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사를 해야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임하는 상인들의 열의가 대단할 뿐더러 서비스 정신 함양을 통해 시장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제일시장에서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 수시 맞춤형 교육에도 힘을 쏟는 등의 시대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표 6〉 제일시장 주요 교육 현황(2006~2007년)

교육명	기간	교육 인원(명)	비고
2006년 상인대학	2006. 11. 6~12.16	35	주 2회 월·금요일 14:00~17:00
2007년 상인대학	2007. 5. 16~ 7. 13	33	주 2회 수·금요일 18:00~21:00
상인 컴퓨터 교육 및 온라인 정보화 교육	2007. 7. 16~ 7. 19	40	4일간 13:00~17:00
상인의식교육	2007. 11. 2~11. 9	40	5회 11:00~14:00

4)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한 시장의 정비

제일시장은 시설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의 정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스토리텔링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정비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하드웨어적 개선에 집중된 경우 고장의 특색과 지역성 및 문화적 측면을 가미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

다. 게다가 천편일률적 시설 개선과 현대화 집중은 실질적 시장 활성화 방안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드웨어적 전통시장 활성화는 도리어 불편하더라도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매력과 특징점을 상실케 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개선, 편의시설 및 아케이드 설치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보다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다. 소비자 접근성이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오는 물리적 방법의 편리성을 의미하며, 둘째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와야 하는 필요성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의미한다. 2008년 김웅진·배일현의 「재래시장 소비자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고객충성도가 재방문의도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고객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 상품권 제도, 종업원 및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 해피콜, 사은품 제공 등의 고객충성도 제고를 위한 시설 외적 요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것이다.³ 따라서 그동안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하드웨어적 측면의 현대화 작업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원인 제공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식하에서 제일시장에서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 현재 제일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 제도는 재래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시장 상인이 주축이 되어 발행하고 있으며, 제일시장 내 신우신흥에서 판매 및 회수 대금 지급을 대행하고 있다. 상품권은 공신력과 위조 방지를 위해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2005년 9월에 8억 원을 발행한 이래 꾸준한 판매로 활발히 유통되고 있으며 현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품권으로 각종 공과금수납이 가능하며 신우신흥에서는 예금화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상품권에 대한 사용 확대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3 김웅진·배일현, 「재래시장 소비자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통경영학회지』 11-1, 2008.

제일시장에서는 매출 증대를 위한 쿠폰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상가에서는 쿠폰을 번영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고객이 물건 구매 시 구매액에 따라 자율적으로 쿠폰을 서비스로 지급한다. 그리고 고객이 일정액을 모아(10매 이상) 청구 시 이를 현금화시켜 줌으로써 단골 고객 유치 및 업소별 매출 증대에 효과를 보고 있다. 아울러 제일시장에서는 고객에게 경품권을 지급하여 매달 말일 기준 추첨을 통하여 1,000여 명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일시장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를 2006년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대형할인점의 주 고객층인 20~40대 젊은 주부들과 어린이들에게 변모한 재래시장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어린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시장을 방문해 정감이 있는 재래시장 풍경을 화폭에 담으며, 번영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떡과 간식 등을 나눠 주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 있다. 또한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시상 작품은 한 달 이상 시장에 전시하여 재래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에게 재래시장이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표 7〉 제일시장 상권 특성

구분	내용
업태의 특성	도소매 종합 시장
주요 품목	의류, 농수산물, 공산품
상권의 특성	지역 상권 중심 시장, 교통 중심지에 위치
경쟁 점포 현황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500m), 지하상가(300m), 태영프라자(500m), 홈플러스 의정부점(1.5km)
시장 이용 가능 지역 (인구)	의정부시(43만 명)를 비롯한 경기 북부(320만 명)
교통 현황	수도권 전철 및 경전철역(의정부역, 500m), 대로 2개(태평로, 평화로), 셋길(행복로 등)

또한 제일시장 고객 신뢰 구축을 위하여 상가, 좌판, 지하 음식백화점 등 300여 상인에게 위생복 및 자체 제작 명찰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인대학 등을 통한 친절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다시 찾아오게 하고 있다. 이는 단골 고객 증대로 이어져 매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일 행사도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특화지구 생선 코너에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하여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제일시장에서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 제작한 단편 홍보 영상이 지역 위성 방송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전통시장의 발전에 현대적 시설이 전부는 아니나 시설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통시장과 현대적 시설의 분리를 통해 시장의 기능과 소비자 유인 기능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 시장은 시장의 지역성과 지역 문화, 그리고 전통·특산물 등 전통시장이 가진 전통적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현대적 기능을 접속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시장이 순수한 전통적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흥밋거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오늘날은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미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제일시장에서는 방문 고객의 원활한 쇼핑을 위한 아늑한 쇼핑 분위기 조성과 날씨 등에 따른 쇼핑 불편의 해소를 위한 일자형 천장의 아케이드를 설치하였다. 또한 시장 중앙에 고객쉼터를 설치하였다. 고객에게 무료 개방되는 고객쉼터에는 쇼핑카드의 비치와 쇼핑하는 동안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준비하여 고객 편의성을 부분적으로 증대시켰다.

그동안 의정부 역사를 중심으로 한 상권 확대와 의정부역 신역사 내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의 설립과 같은 시장 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 요인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제일시장은 진정한 전국 제일의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준비를 차근차근 시행 중에 있다.

제일시장의 앞으로 소비 고객 확대는 창조적 시장 환경의 조성을 통한 인근 지역의 커뮤니티 장으로의 역할 변화에 달려 있다. 더불어 관광객 흡수를 통한 관광 특성화가 어우러진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창조적 시장의 원천은 고객, 즉 시민들로부터 발현되므로,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이 대형 자본을 통한 시장의 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공했다면, 전통시장은 이와는 다른 창조적 시장의 기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창조적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접근이 가장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순 기능보다

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커뮤니티 장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할 수 있다.⁴

외부 고객의 경우 지역 고객과 유사한 정서적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연계 작업을 통해 유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외부적으로 도시를 홍보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알리는 작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관광객의 경우 전통시장의 방문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타 관광 상품과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 관광 상품을 연계하고, 동시에 우리의 옛것이 남아있는 전통시장의 체험과 쇼핑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hybrid)형 관광 장소로서의 동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프로그램화하고 재래시장 방문 시의 인센티브와 이벤트와 같은 것을 접목하여 스토리텔링(Story-Telling)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상의 전통시장 소재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등의 홍보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광과 추억을 상품화할 수 있는 연계 상품의 구상이 요구된다. 또한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광자원의 부족 현상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인접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일시장은 앞으로 의정부 지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국 전통시장의 발전 표본이 되는 전국적 전통시장으로 발전을 꾀하기 위해 하드웨어적 성장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재정립하여 재미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홍영택 숭실대학교 숭실호스피탈리티 관광경영학과 교수

4 김흥렬·허중욱,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의 관광 매력성, 만족 및 행동의도 관계연구」, 『대한관광학회지』 25, 2012, 141~155쪽.